
국내 고령관광 수요예측 및 트렌드 분석

2006. 12.

문화관광부

제 출 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내 고령관광 수요예측 및 트렌드
분석”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범위	15
3. 연구수행체계	16

제2장 고령사회

1. 고령사회의 도래	21
2. 고령사회의 특징	37
3. 고령사회의 전망	53

제3장 고령관광레저

1. 고령관광레저의 개념	99
2. 고령관광레저의 현황	100
3. 고령관광레저의 트렌드	101

제4장 고령관광수요

1. 수요예측의 기본방향	113
2. 고령관광총량 예측	119
3. 관광레저도시의 고령관광수요	121

제5장 고령관광레저산업 개발방향

1. 핵심 고령관광레저산업	127
2. 관광레저도시의 고령정주수요	128
3. 관광레저도시형 실버타운 모형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평균수명 변화	25
<표 2-2> 65세이상 고령인구 추이	27
<표 2-3>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27
<표 2-4> 인구,가구,연령별 고령화 추계인구	27
<표 2-5> 성별고령인구추이	29
<표 2-6> 도시,농촌의 65세이상 인구비교	30
<표 2-7> 시.도 및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비율(2005)	32
<표 2-8> 100세이상 고령자규모	32
<표 2-9> 100세이상인구의 시도별 분포	33
<표 2-10>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5
<표 2-11> 성별,연령별 사망률	36
<표 2-12> 노인부부가구의 가계수지	38
<표 2-13> 경제활동참가율	40
<표 2-14> 65세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42
<표 2-15> 65세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43
<표 2-16> 65세이상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44
<표 2-17> 60세이상 취업자의 성별 월 급여수준	45
<표 2-18> 60세이상 취업자의 성별,직종별 월 급여수준	46
<표 2-19> 고령자의 취업의사및 취업희망이유	47
<표 2-20>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48
<표 2-21> 65세이상 인구의 교육정도	50
<표 2-22> 컴퓨터 이용가능 여부	51
<표 2-23> 인터넷 이용경험여부및 인터넷 이용률	52
<표 2-24> 산업별 청년 근로자(15~24세이하) 비중	56
<표 2-25>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현황(2005.3)	57
<표 2-26> 산업별 55세이상 고령근로자 비중	58

<표 2-27> 한.미.일 55이세 이상 고령근로자 활용비율 비교(2002)	58
<표 3-1> 고령친화산업 8개부문 19개 전략품목	67
<표 3-2> 노인복지시설 현황(2004)	68
<표 3-3>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소비지출	79
<표 3-4> 미국 소비자의 연령별 엔터테인먼트 소비지출	79
<표 3-5> 고령화사회 5대성장산업 트렌드	94
<표 4-1> 노인들의 욕구와 행동의 특성	99
<표 4-2> 50대이상 국내여행경험률	100
<표 4-3> 국내여행 참가횟수	101
<표 4-4> 국내여행 방문지	102
<표 4-5> 국내여행일수	103
<표 4-6> 국내여행시기	104
<표 4-7> 국내여행동반자 수	105
<표 4-8> 국내여행 동반자 유형	105
<표 4-9> 국내여행 방문목적	106
<표 4-10> 국내여행 방문지 활동	107
<표 4-11> 국내여행 교통수단	108
<표 4-12> 국내여행 비용 주 지불자	109
<표 5-1> 고령관광인구추계	114
<표 5-2> 고령관광총량현황	115
<표 5-2> 행태별 고령관광총량현황	116
<표 5-3> 목적지별 방문현황	117
<표 5-4> 지역관광객 방문현황	117
<표 5-5> 예측모델및 모델설명력	118
<표 5-6> 2015년 고령관광총량 예측결과	119
<표 5-7> 광역별 고령관광총량예측	120
<표 5-8> 지역별 고령관광총량예측	121
<표 5-9> 행태별 고령관광총량예측	122
<표 5-10> 지역별 고령관광총량 정책목표	12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과정도	17
<그림 2-1>노령인구소비자의 국문명칭	21
<그림 2-2> 노령인구소비자의 영문명칭	22
<그림 2-3>고령화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	23
<그림 2-4> 평균수명 추이	25
<그림 2-5> 출산율 추이의 국제비교	26
<그림 2-6>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28
<그림 2-7>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29
<그림 2-8> 도시,농촌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30
<그림 2-9>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31
<그림 2-10>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34
<그림 2-11> 성별 연령별 사망률	36
<그림 2-12>65세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2005)	40
<그림 2-13> 65세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2005)	41
<그림 2-14> 65세이상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2005)	43
<그림 2-15> 60세이상 취업자의 성별 월 급여수준	44
<그림 2-16> 60세이상 취업자의 성별 직종별 월 급여수준(2004)	45
<그림 2-17>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46
<그림 2-18> 65세이상 인구의 교육정도	48
<그림 2-19> 60세이상 컴퓨터 이용가능자	49
<그림 2-20> 60세이상 인터넷 이용경험자	50
<그림 2-21> 총 인구에 대한 이민인구의 필요비율	52
<그림 2-22>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2005.3기준)	56
<그림 2-23> 현 수준의 노동공급 유지를 위한 잉태연령조정	59
<그림 3-1> 고령친화 산업의 등장배경	63
<그림 3-2> 모태및 고령친화 산업 범주설정	66
<그림 3-3>노인 인구및 노인가구의 비중	86

<그림 3-4> 고령친화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94
<그림 5-1> 수요예측 수행도	114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체계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2003년 9월에 시행된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규정에 의거 대통령정책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로 승격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
- 2005년 산업자원부는 부산테크노파크에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6년 2월에 고령친화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의료 및 용구용품산업을 중심으로 고령화산업에 대한 연구 및 투자사업을 활성화함.
-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인해 2008년에 도입 기로 접어들어 2010년부터는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2010-2020년 고령친화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12.9%(기존산업성장률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고령친화산업동향, 2006),
- 중고령(50-64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소비의 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LG 주간경제, 2005).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에 의하면, 2002년 기준 고령친화산업(65세이상)의 규모는 6조 3,82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10년에 50대(전체인구의 30%)이상 시니어마켓의 규모는 10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고령예비층인 50세 이상의 시니어마켓과 65세 이상의 고령마켓에 대한 관광수요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태안, 무주, 영암/해남에 향후 자급자족형 레저관광 복합기능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레저 수요에 대한 수요예측, 개발컨셉 및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골프대학, 카지노대학, 호텔·레저·관광학과의 설치, 고령단지 연계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의 건립, 프로스포츠 전지훈련장, 레저교습시설, 국제경기장, 국제회의장, 공연장 등을 건설(서울신문, 2004)하게 되는데, 급증하는 고령 관광레저인구에 대한 수요예측 및 트렌드를 기초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1-2. 연구목적

□ 수요예측

- 국내 저출산, 고령화현상에 따른 인구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50세 이상의 고령인구 추세를 파악
- 국내 고령관광수요를 예측하고 관광레저도시의 수요를 전망
- 관광레저도시형 실버타운의 건립 시 잠재 정주수요를 예측

□ 고령관광레저의 트렌드 분석

- 고령관광행태 분석
- 여가 및 레저행태 분석
- 한일 고령화 비율, 가처분소득, 교양오락비 비교 분석
- 선진국 고령레저관광 관련 추세 분석
- 일본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고령관광레저의 트렌드 예측

□ 핵심 고령사업의 방향제시 및 모형개발

- 핵심 고령친화산업의 발굴
- 관광레저도시의 고령정주수요를 예측
-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실버타운 및 고령관광레저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제시
- 관광레저도시에 맞는 실버타운의 개념정립 및 모형개발

2.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국내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들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전국을 연구대상으로 함
- 해외 연구대상으로는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기타 고령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선진국가 사례들을 포함

□ 시간적 범위

- 연구수행기간: 2006. 9 - 2006. 12 (60일)
- 내용적 시간범위: 1970년 - 2050년(선별적 적용)

□ 내용적 범위

- 인구구조변화 및 고령화 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
- 고령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외 고령사회의 실태를 분석
- 고령화 속도, 소득구조 등 일본의 고령화현상에 적용함으로써 고령관광행태 전망
- 고령 관광객 수, 여행형태별, 지역별, 수입별 현황분석을 통한 고령관광수요 예측
- 고령관광레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적 분류를 시도
- 국내 고령관광총량을 예측하고 관광레저도시의 고령관광총량을 추정
- 고령친화산업의 추세를 파악하고 핵심사업을 도출
- 관광레저도시의 고령정주수요를 예측
- 해외 실버타운사례분석 및 고령관광레저 트렌드를 전망
- 실버타운 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발모형 제시

3. 연구수행체계

3-1. 연구수행방법

□ 문헌조사

-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들의 통계보고 및 보고서 활용 및 분석
- 한국 학술정보학회지 데이터베이스(KISS) 통한 고령관련 학술논문 및 학술서적 참조
-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기업경제 연구소 보고서 및 LG주간경제, OECD Focus, 매일경제 등 기사 조사 및 분석
- 일본 총무성, 내각부 자료, 보고서 및 고령관련 서적 참조

□ 자문 및 전문가토론

- 다수의 관광수요예측 전문가들의 컨설팅 자문의견 조사
- 연구에 참여한 관광 및 수요예측 전문가들의 수시 검토의견 수렴
- Focus 그룹토론을 통한 방향수정 및 고령산업개발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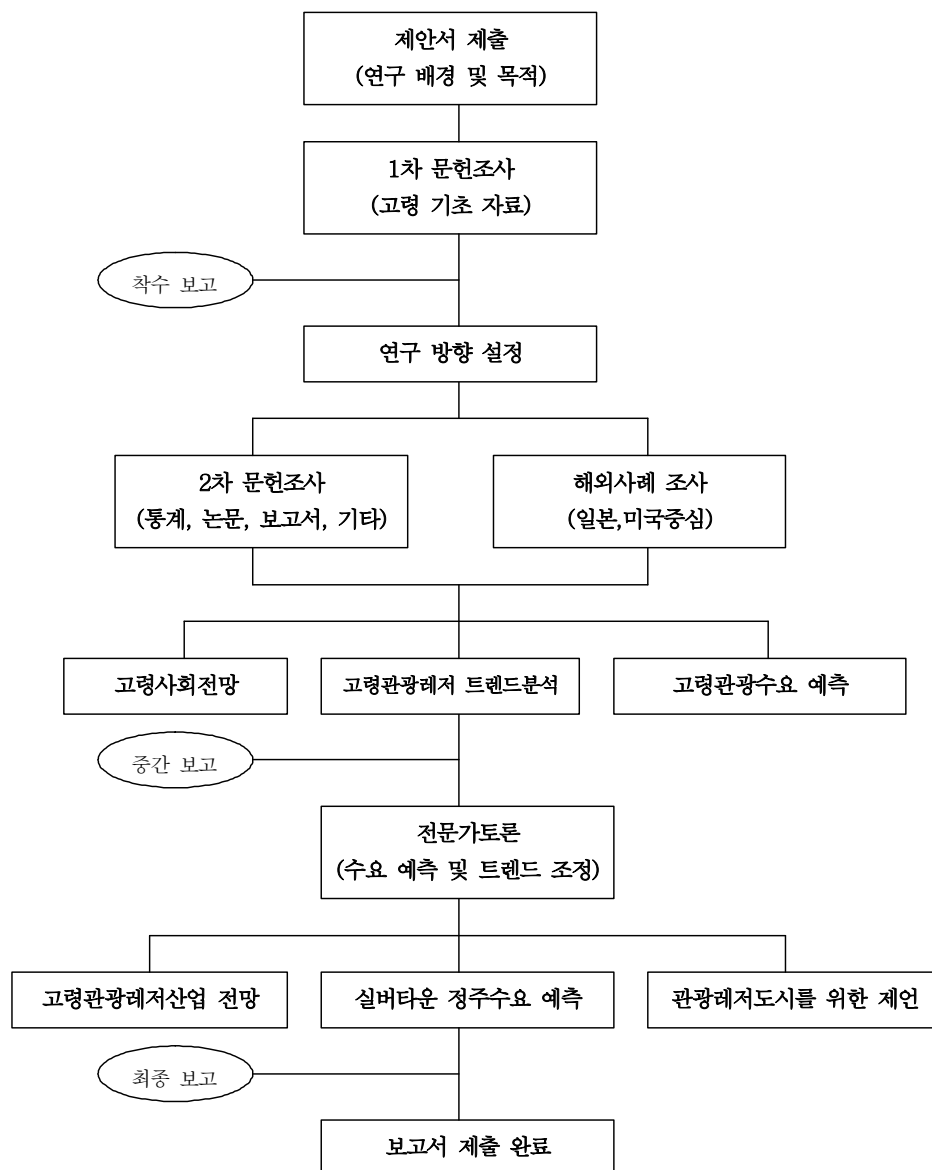
□ 해외사례 조사

-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관광레저시설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요 고령관련 기관 및 장소를 방문조사
- 해외의 실버타운 및 고령관련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국내 고령관광레저의 미래를 전망하고 실버타운모형개발을 시도

3-2. 연구수행과정

-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그림 1>과 같으며 다음 5단계로 요약할 수 있음
 - 1단계(연구방향설정): 고령기준설정, 연구범위설정, 자료출처파악 등 연구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1차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연구방향을 설정

- 2단계(문헌조사): 2차 문헌조사에서 국내외 고령관련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서, 연구논문 및 시사 및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함
- 3단계(해외사례조사): 세계 최고 고령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의 각종 시설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문헌을 통해 선진국의 고령관광레저 추세를 파악
- 4단계(수요예측): 국내 고령관광 수요 및 실버타운 정주수요를 예측하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통하여 관광레저도시의 고령 관광객 수요 및 실버타운 수요 예측
- 5단계(결론도출): 향후 국내 고령관광레저의 행태 및 추세를 전망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레저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의 실버타운개발모형을 제시



<그림 1-1>연구수행과정도

제2장 고령사회

1. 고령사회의 도래

2. 고령사회의 특징

3. 고령사회의 전망

1. 고령사회의 도래

1-1. 고령사회의 정의

□ 고령자의 범위

-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함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미만인 자
 - 노인복지법 :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
- 『2006 고령자통계』(통계청, 2006)에서 고령자는 주로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다만 인용한 원(原) 통계의 작성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미국(인구통계국)의 경우, 55-64세(the olders), 65-74세(the elders), 75-84(the aged), 85세 이상(the very old)로 분류(이건직, 2005)
- 통계청(2005)에서는 생산가능인구를 15-24세, 25-49세, 50-6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LG경제연구원 박래정·양희승(2005)의 외국기업경영사례 분석표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령직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 고령관련 명칭

- 국내 33개, 국외 89개의 마케팅적 입장에서 접근한 문헌분석(김미애, 2004)을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노령인구에 대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과거 노인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다가 실버세대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고령이라는 용어가 대두됨

<표2-1> 고령인구소비자의 국문 명칭

명 칭 연도	노인	노인층	노년층	실버세대	G세대 (그레이)	성숙인	기타
1987	1						
1990	1						
1991	1						
1992	4	1					
1993	1						
1994	2			2			
1995	3						
1996	1	1	1				
1997		1		1			
1998		1	2	2	1	1	third age/senior
1999		1	1				
2001				3	1		
2002			1				
2003						1	
계	15	5	5	8	2	2	

자료: 김미애(2004) 60세 이상 인구의 명칭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적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령인구에 대한 영문명칭으로는 'elderly', 'the old'가 가장 많이 사용됨
- 근래에는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는 'senior(원로)'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성숙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mature'가 더 빈번하게 사용됨

<표2-2> 고령인구소비자의 영문 명칭

명 칭 연도	the old (older)	the aged	elderly	senior	mature	기타
1956						last frontier
1968	1					
1971					1	olderster
1975	1					
1976			1			
1977			2	1		
1978	1		2			
1979	2		2			
1980	1		3			invisible consumer market
1981	1					
1982	1	1	2			
1983	1		1			
1984	1		4	1	1	
1985	1		9	1	1	Newly gray
1986			2		1	
1987			5	3		

1988	3		3		1	Full-Life
1989	1	1	1			New Gold Market/gray
1990	1			1		
1991					1	Muppies
1992	3		4	1	1	
1993					1	
1994					1	
1996				1	1	
1997	2				5	
계	21	2	41	9	15	

자료: 김미애(2004) 60세 이상 인구의 명칭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적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고령화사회의 분류

○ UN의 정의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를 크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됨(산업자원부, 2005)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 - 14% 미만인 사회

–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 - 20% 미만인 사회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 고령명칭과 고령사회분류에 관해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음

고령명칭	50-64세를 준고령자(senior), 65세 이상을 고령자(the elders)로 정의함
고령사회분류	UN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준에 따라 분류: 고령화사회(7-14% 미만), 고령사회(14-20%미만), 초고령사회(20% 이상)

1-2. 고령사회의 등장 배경

□ 평균 연령의 증가

○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2006)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전체 인구의 평

균 연령은 36세이며 2010년 이후 매 10년마다 평균 5세씩 증가하고 있음

<표2-3> 우리나라의 평균연령

(단위: 세)

연도	2006	2010	2020	2030	2040	2050
한국	36	37	43	48	53	56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 평균 수명의 증가

-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1970년 평균수명이 62세에서 2050년 83세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향후 기대수명은 2005년 기준, 평균 78.63세(남 75, 여 82세)로 예상되며, OECD 30개국의 평균 기대수명(남 75세, 여 81세)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2006)

<표2-4> 우리나라 평균수명 변화

(단위 : 천 명)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30	2050
평균수명 계	61.93	63.82	65.69	68.44	71.28	73.53	76.02	78.63	79.10	81.90	83.30
남 자 (A)	58.67	60.19	61.78	64.45	67.29	69.57	72.25	75.14	76.20	79.20	80.70
여 자 (B)	65.57	67.91	70.04	72.82	75.51	77.41	79.60	81.89	82.60	85.20	86.60
남녀차이 (B-A)	6.91	7.72	8.26	8.37	8.22	7.84	7.35	6.75	6.40	6.00	5.90

자료: 통계청(2006) 2005년 생명표 작성결과

□ 저출산 확대

- 19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이후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임
- 한편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대한상공회의소, 2005)

〈표2-5〉 OECD 국가의 기대수명

(단위: 세)

국 가	년 도	남자	여자	차이(여-남)
한국	2005	75.1	81.9	6.8
그리스	2004	76.6	81.4	4.8
네덜란드	2004	76.9	81.4	4.5
노르웨이	2004	77.5	82.3	4.8
뉴질랜드	2004	77.0	81.3	4.3
덴마크	2004	75.2	79.9	4.7
독일	2004	75.7	81.4	5.7
룩셈부르크	2003	75.0	81.0	6.0
멕시코	2004	72.7	77.6	4.9
미국	2003	74.8	80.1	5.3
벨기에	2003	75.9	81.7	5.8
스웨덴	2004	78.4	82.7	4.3
스위스	2004	78.6	83.7	5.1
스페인	2004	77.2	83.8	6.6
슬로바키아	2004	70.3	77.8	7.5
아이슬랜드	2004	79.2	82.7	3.5
아일랜드	2003	75.8	80.7	4.9
영국	2003	76.2	80.7	4.5
오스트리아	2004	76.4	82.1	5.7
이탈리아	2003	76.8	82.5	5.7
일본	2005	78.5	85.5	7.0
체코	2004	72.6	79.0	6.4
캐나다	2003	77.4	82.4	5.0
터어키	2005	68.9	73.8	4.9
포르투갈	2003	74.2	80.5	6.3
폴란드	2005	70.8	79.4	8.6
프랑스	2004	76.7	83.8	7.1
핀란드	2004	75.3	82.3	7.0
헝가리	2004	68.6	76.9	8.3
호주	2004	78.1	83.0	4.9
30개국 평균		75.4	81.1	5.7

자료: OECD(2006) HEALTH DATA (<http://www.oecd.org/home>)

- 2002년 기준 일본 1.29명, 미국 2.01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며, 2003년도 OECD 평균은 1.6명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가임기간(15~49세) 여성의 평균출산 자녀 수

-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의 원인은 미혼율의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및 출생이수의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표2-6>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단위: 명)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출산율	4.53	3.47	2.83	1.67	1.59	1.65	1.47	1.08

자료: 통계청(2006) 인구동태건수 동태율추이

□ 고령인구증가의 가속화

- 전세계적으로 고령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됨

<표2-7>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2000 (고령화)	2010	2018 (고령)	2020	2026 (초고령)	2050
총 인 구(천명)	47,008	49,220	49,933	49,956	49,771	42,348
65세 이상(천명)	3,395	5,354	7,162	7,821	10,357	15,793
구 성 비(%)	7.2	10.9	14.3	15.7	20.8	37.3

자료 :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 고령화 속도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고령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18년이 걸렸으나, 14%에서 20%의 초고령사회까지는 불과 8년이 걸려 선진국들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표2-8>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고령인구비율 국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년수		2002년 65세이상 인구구성비(%)
	7%	14%	20%	7%→14%	14%→20%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16.3
노르웨이	1885	1977	2021	92	44	14.9
스웨덴	1887	1972	2011	85	39	17.2
호주	1939	2012	2030	73	18	12.7
미국	1942	2014	2030	72	16	12.3
캐나다	1945	2010	2024	65	14	12.7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18.6
영국	1929	1976	2020	47	44	15.9
독일	1932	1972	2010	40	38	17.3
일본	1970	1994	2006	24	12	18.4
한국	2000	2018	2026	18	8	7.9

자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 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OECD(2003, 2004) OECD Health Data

2. 고령사회의 특징

2-1. 일반적인 특징

□ 고령사회의 특징을 다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복지적 문제가 중요시 되며, 사회적으로는 노인문제와 관련 산업의 발달을 가져옴

○ 경제적 측면

- 취업구조의 노령화,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생산성 둔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 복지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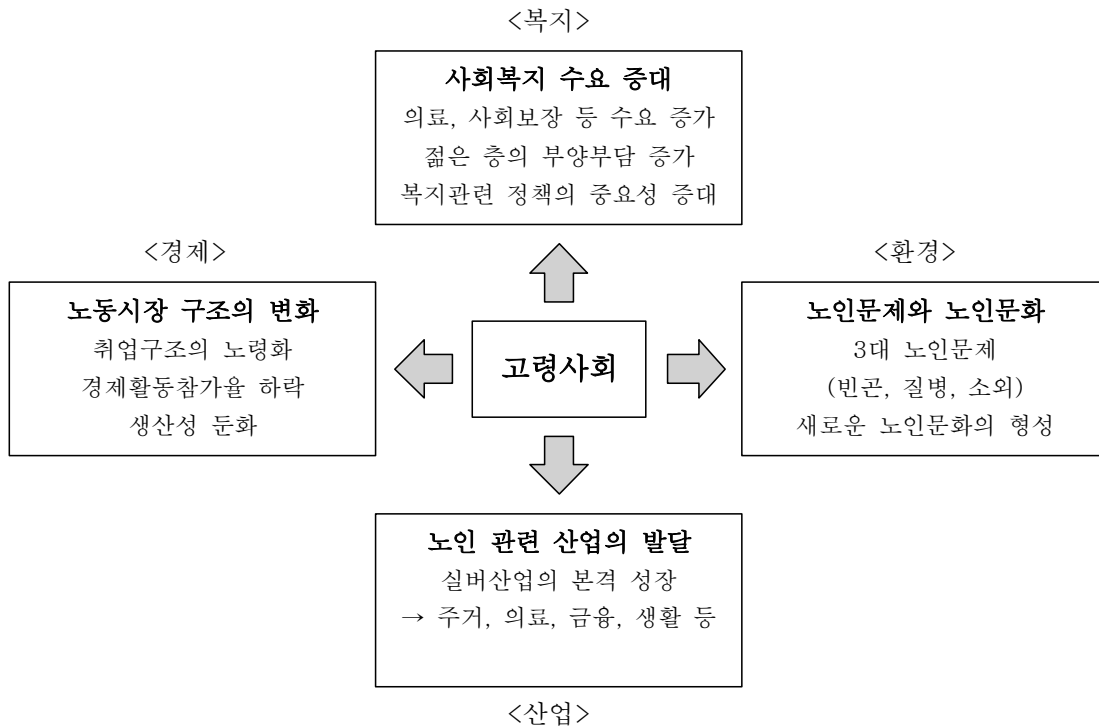
- 의료, 사회보장 등 수요증가,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가, 복지관련 정책의 중요성 증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대

○ 사회문화적 측면

- 3대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 발생 및 새로운 노인문화의 형성
- 노인가구의 구성비가 2000년 현재 8.9%에서 2020에는 1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계층의 증가로 평생교육,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중요시 됨

○ 산업적 측면

- 주거, 의료, 금융, 생활 등 노인 관련 산업의 발달



자료: 전만복(2004) 21세기 실버산업의 이슈와 전망,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그림2-1> 고령화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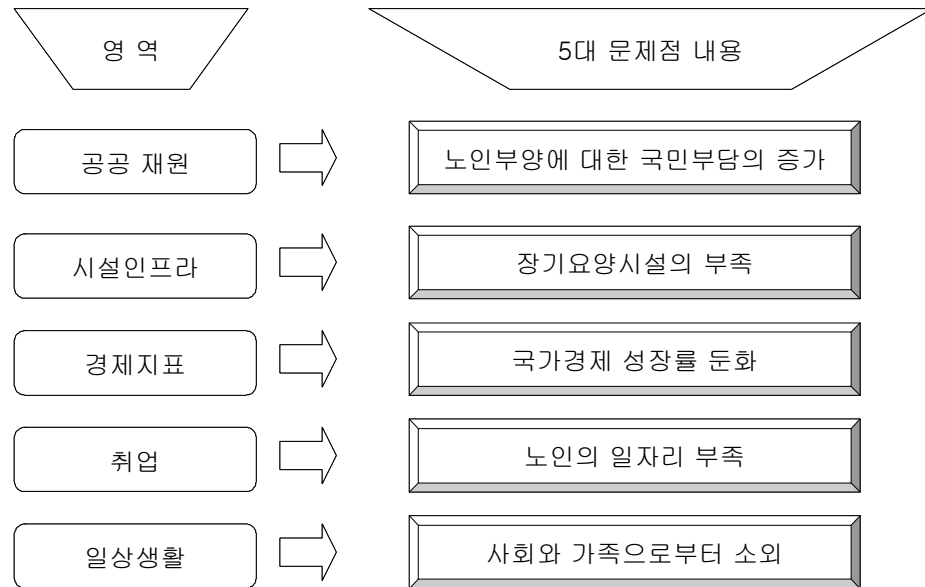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원(2002)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하여 그림<2-2>와 같이 5개의 문제점을 제시함

2-2. 경제환경의 변화

□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LG경제연구원, 2005)

- 최근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고령인구의 증가가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한 탓으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상태임
- 한편 연금 및 보건의료비용의 증가는 선진국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화에 따른 ‘선진국병’, 즉 고령인구는 증가하나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저조하고,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 추세

- 이러한 고령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경제성장률 저하, 재정적자 확대를 가져오며, 산업적으로는 소비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하게 됨(그림2-2)



자료: LG경제연구원(2005)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그림2-2>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요약

2-3. 우리나라의 고령경제상황

□ 잠재경제성장의 둔화(대한상공회의소, 2006)

- 2000년대와 2010년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5.1%, 4.8%로 전망됨.
- 그러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잠재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3.5%, 2030년대 2.2%, 2040년에는 1.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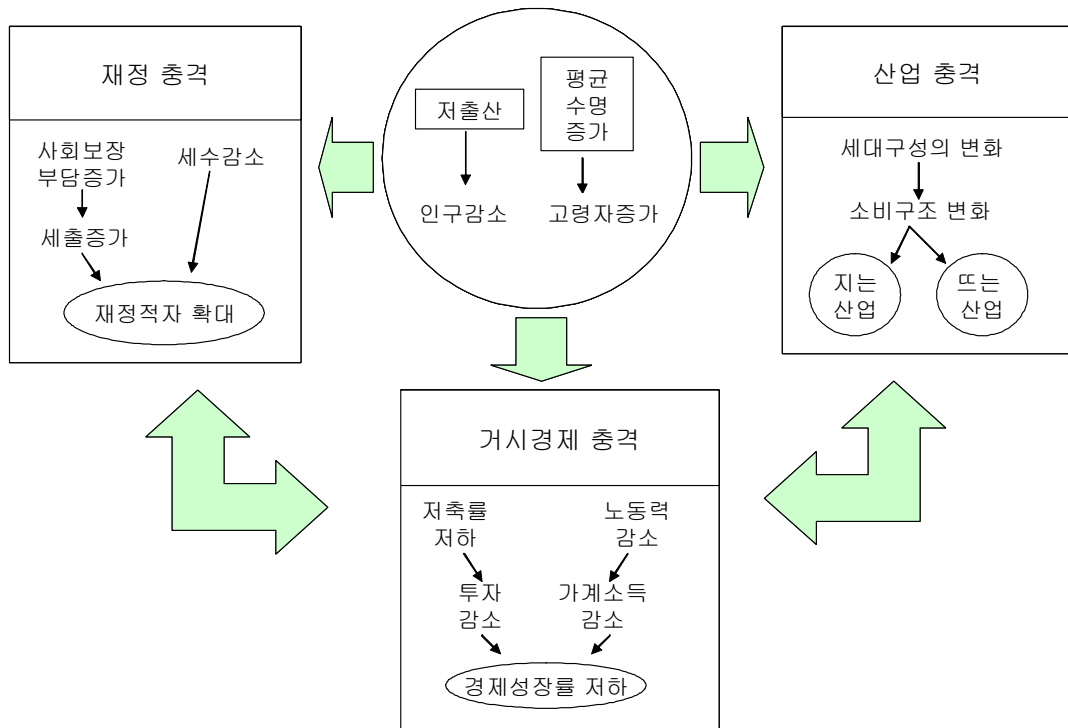
□ 노동공급의 감소(대한상공회의소, 2006; LG경제연구원, 2005)

-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71.8%로 선진국 평균 67.7%보다 높지만,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 20%, 2050년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55세 이상) 비중은 16.1%로 일본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고령사회의 경제 파급효과

- 저출산과 고령화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발달은 기존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킴
- 재정적으로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저축률 및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저하할 것으로 보임



자료: LG경제연구원(2005)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그림2-3> 고령사회의 충격

- 2000-2025년 고령근로자 증가율은 12.5%로 OECD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공급의 감소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예상됨
- 50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21.50%에서 2021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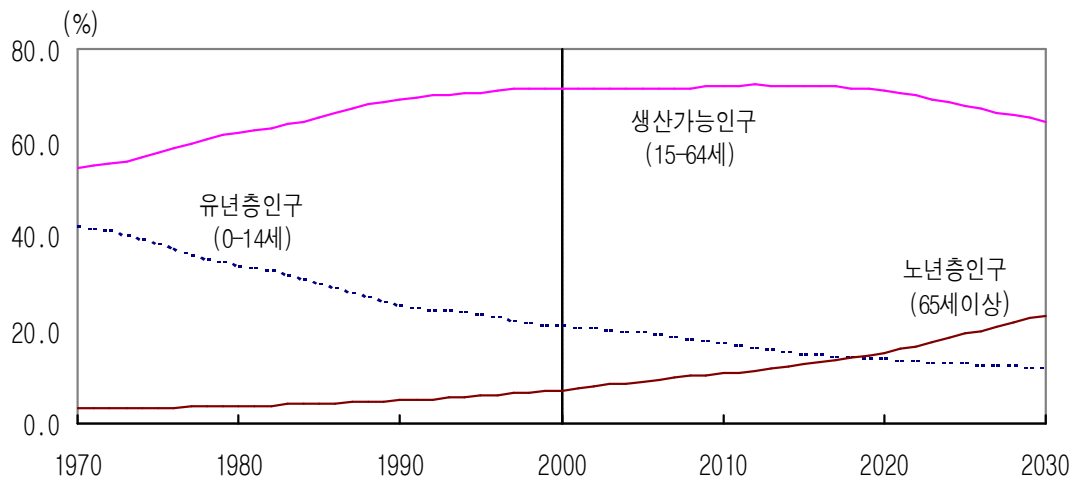
40.55%로 총인구의 2배까지 늘어날 전망

<표2-9> 인구, 가구, 연령별 고령화 추계 인구

(단위: 천 명)

연도	총 인구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이상	계(50이상)	비율
2002	47,615	4,549	3,447	1,692	501	50	10,239	21.50%
2003	47,849	4,687	3,535	1,786	534	52	10,594	22.14%
2004	48,082	4,890	3,584	1,891	575	55	10,995	22.87%
2005	48,294	5,188	3,611	2,008	618	60	11,485	23.78%
2006	48,497	5,485	3,656	2,128	662	68	11,999	24.74%
2007	48,692	5,747	3,740	2,251	706	77	12,521	25.72%
2008	48,877	6,037	3,839	2,371	751	89	13,086	26.77%
2009	49,053	6,378	3,931	2,483	808	98	13,698	27.92%
2010	49,220	6,736	4,017	2,588	861	108	14,310	29.07%
2011	49,375	7,098	4,078	2,700	912	124	14,912	30.20%
2012	49,510	7,389	4,190	2,804	981	138	15,502	31.31%
2013	49,626	7,669	4,331	2,881	1,049	153	16,083	32.41%
2014	49,724	7,876	4,532	2,925	1,122	170	16,627	33.44%
2015	49,803	7,979	4,821	2,954	1,206	185	17,144	34.42%
2016	49,862	8,061	5,106	3,001	1,289	201	17,658	35.41%
2017	49,906	8,124	5,358	3,086	1,372	218	18,157	36.38%
2018	49,934	8,153	5,639	3,181	1,453	236	18,662	37.37%
2019	49,950	8,158	5,969	3,271	1,528	260	19,186	38.41%
2020	49,956	8,174	6,313	3,354	1,598	279	19,718	39.47%
2021	49,954	8,208	6,657	3,414	1,674	301	20,255	40.55%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자료: 통계청(2006) 고령자통계

<그림2-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 국가 재정부담의 증가(대한상공회의소, 2006; 통계청, 2006)

- 2005년 기준,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12.6%로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는 유년인구 100명당 2005년 47명, 2030년 215명, 2050년 416명으로 늘어나 세대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 노인복지예산은 2006년 5,91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4%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 대비 626억원 증가
- 2005년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는 737천명으로 수급율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16.8%임
- 2005년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6조 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한 24.4%를 차지함

3. 고령사회의 전망

3-1. 소비패턴의 변화

□ 고령소비자의 증가(대한상공회의소, 2006)

- 65세 이상 세계인구는 2000년 약 3억명, 2020년 6억명을 예상
- 미국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1946-1964년 출생)는 2006년 현재 8천만명으로 2011년에 65세에 진입하며, 203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의 2배인 7천만명 예상
- 노령연금 수령자는 2001년 60만명, 2005년 109만명, 2010년 183만명, 2018년 800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80%정도가 연금수령자가 될 것으로 추산
- 국내 고령자들은 50대에는 자녀교육비, 주택대출상환금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줄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소비가 급격히 증가. 2004년 전체가구 평균소비성향은 79인데, 노인가구는 113임
- 50세 이상(준고령자, seniors) 노인소비자 시장은 2000년 20.4%에서 2010년 28.7%로 확대될 전망

□ 신소비패턴(대한상공회의소, 2006; 산업자원부, 2005)

- 200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소비지출액을 100으로 볼 때, 보건의료비(134.4), 주거광열비(124.1), 식료품비(122.1), 피복신발비(120.6), 교통통신비(118.2)순으로 그 증가폭이 큼
- 자신감 고양, 젊음을 다시 찾아주는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함
- 가족의존을 벗어나 외부 전용 서비스기관에 의존하려는 라이프스타일이 성행
- 'wellness'와 'anti-aging'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장이 전망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새로운 생활의식(합리적, 미래지향적), 노년기 인식(자기실현의 기회), 노후설계(계획적인 설계)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성향을 지님(산업자원부 내부자료, 2006)
- 이들은 자동차, 영화, 주택산업 활성화의 주역이 되며, 컴퓨터, 정보통신, 생명공학의 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BT, biotechnology)을 기반으로하는 의료건강상품 또는 첨단제품을 선호 할 것으로 전망(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2006)

* 국내 생명공학(BT)산업 연평균 증가율(1999-2003): 내수(24.3%), 수출(24.6%), 수입(24.8%)

3-2.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 국내 고령시장 전망

- 우리나라 14개 분야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매출규모가 성장하고 모태산업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대한상공회의소, 2006)

<표 2-10>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구분	매출규모	연평균 성장률	모태산업대비 비중	모태산업 연평균 성장률
2002	12.8조원	n/a	2.2%	n/a
2010	43.9조원	16.64%	4.7%	5.87%
2020	148.6조원	14.58%	10.0%	5.23%

* 모태산업: 고령친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지칭(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 14대 고령친화산업: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산업을 가리킴

- 2004년 기준 고령인구(64세 이상)의 전체금융자산은 전체금융의 25.6%이며,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3,894만원(전체평균 1,322만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높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산자부 내부자료, 2006)
- 신체적·정신적 노화에 수반되는 각종 질병치료, 건강유지 위한 보건·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산자부 내부자료, 2006)
 - 미국의 경우 고령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전 연령 평균 지출의 3배 수준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산자부 내부자료, 2006)
 - 2008년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10.0%에 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측면에서의 구매력이 증대되는 해
 - 베이비붐세대(1950년대 후반 ~ 70년대 초반 출생)의 은퇴예상시점과도 부합하는 시기
 -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세대가 70세에 접어드는 2025년경이 되어야 본격적인 고령

친화산업의 성장이 예상

<표2-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전환 시기

노인층 구매력 증대요인	8대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 규모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2007년경	요양산업,기기산업,	6.4조원('02년, 1.6%)
고령자비중 10% 이상:2008년경	정보산업,여가산업,	->30.5조원('10년, 4.5%)
전국민연금제도 급여지급:2008년경	금융산업,주택산업,	->115.7조원('20년, 10.3%)
1인당 국민소득 2만불:2008년경	한방산업, 농업	
베이비붐세대 은퇴(60세):2010~25년		

자료 :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2005)

□ 해외 고령시장 전망(대한상공회의소, 2006; 산업자원부, 2005)

- 미국의 경우 고령소비는 전체소비시장의 50%를 차지하며, 2025년 그 규모는 최소 4조 1,743억 달러로 추정
- 90년대 중반 미국의 경우, 50대 이상의 준고령계층이 전체 개인재산액의 3/4, 금융자산의 77%, 여유소득의 1/2, 총 소비의 40%, 1인당 소비액이 전체 평균의 2.5배에 해당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1세기 경제, 산업정책 비전' 보고서에서 3대 유망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 환경산업, 감성산업을 선정하고, 시장규모는 2001년 39조엔에서 2025년 155조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2015년부터, 일본은 2016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고령친화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산자부 내부자료, 2006)

□ 민간참여기회의 확대(산업자원부 내부자료, 2006)

- 정부의 노인복지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간병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요양시설 건립, 간병인 확보)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인요양제 수혜대상자: 2005년(53만명) - 2010년(65만명) - 2020년(95만명) 추정

- 향후 연금수령자의 증가 및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비여력이 확충됨에 따라 노인 대상의 다양한 민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연금수령자수/55세 이상 인구 비중: 2002년(60만명, 8%) - 2010년(235만명, 23%) - 2030년(657만명, 33%) - 2050년(1,027만명, 47%)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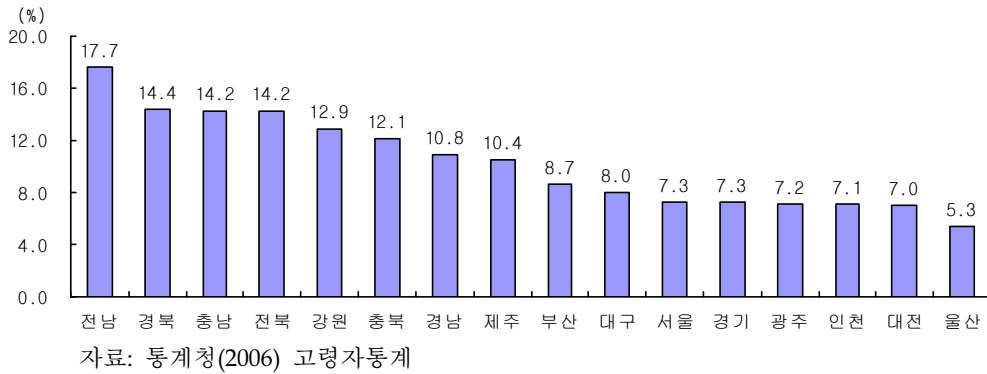
3-3. 노동시장의 다양화

- 노동공급의 증가세 둔화로 여성인력과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할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2005; LG경제연구원, 2005)
-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55세 이상) 비중은 16.1%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2025년에는 30%로 그 비중이 증가되어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보임(LG경제연구원, 2005)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취업 비중은 2004년 현재 48.3%로 일본의 61.7%에 못 미치지만 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인력고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LG경제연구원, 2005)
- 기업이 좀 더 많은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풀타임, 단시간 사원, 계약사원, 위탁사원, 파견근로자 등 경영상황에 맞게 유연한 인력고용계획을 세우고, 해외인력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LG경제연구원, 2005)

3-4. 지역불균형의 완화

□ 시도 · 시군구별 고령 인구 편차 현황

- 200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시도는 전남이 가장 높고 울산이 가장 낮으며, 시군의 경우는 전북 임실군이 가장 높고 울산 동구가 가장 낮음
-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남이 17.7%로 가장 높았고, 경북(14.4%), 충남(14.2%) 순이었으며, 울산이 5.3%로 가장 낮았음
- 2005년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북 임실군이 33.8%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군(32.8%), 경남 의령군(32.3%) 순이었으며, 울산 동구가 3.6%로 가장 낮았음
- 2000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 전남, 경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는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
 - 2000년에 총 29개의 시군구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였으나, 2005년에는 63개에 달했고 이중 14개군은 30%를 넘어섰음



<그림2-5>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2005)

<표2-12> 시도 및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비율(2005)

(단위 : %)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시군구	비율	시군구	비율
전남	17.7(13.6)	울산	5.3(4.0)	전북 임실군	33.8(24.7)	울산 동구	3.6(2.7)
경북	14.4(11.6)	대전	7.0(5.5)	경북 의성군	32.8(24.1)	울산 남구	4.2(3.0)
충남	14.2(12.1)	인천	7.1(5.5)	경남 의령군	32.3(25.2)	경남 창원시	4.5(3.5)
전북	14.2(11.2)	광주	7.2(5.6)	전남 고흥군	31.9(23.1)	대구 북구	4.5(5.1)
강원	12.9 (9.9)	경기	7.3(5.8)	경남 합천군	31.8(23.8)	경기 시흥시	5.0(4.1)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내는 2000년 비율임

□ 고령 인구 편차의 감소 예상

- LG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이지평, 2005)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지방보다는 도시지역에 점차 더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도시지역에서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이 심했으며 전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 등 도시로 유입되던 젊은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평균 -0.23%, 2010-2015년 -0.3%, 2020년대에는 -0.5%로 감소할 전망
- 또한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의 하락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소득증가세는 둔화됨으로써 지방과의 소득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임

제3장 고령관광레저

1. 고령관광레저의 개념

2. 고령관광레저의 현황

3. 고령관광레저의 트렌드

1. 고령관광레저의 개념

1-1. 여가·레저의 비교

□ 여가의 정의

- 여가는 노동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여유시간에 자기만족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 할 수 있음(표3-1)

〈표3-1〉 여가 개념의 비교

Kaplan (1960)	여가란 원칙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즐거움으로 기대되고 즐거운 것으로 회상될 수 있는 것
Havinghurst (1988)	노년기의 여가란 휴식을 구하고, 젊었을 때에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여가의 개념
Dumazedier (1974)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행해지는 비의무적(unobligated) 자유시간
Parker (1971)	첫째는 잔여시간을 중시하는 재면(residual type)이 있고, 둘째는 전자의 잔여시간에 대한 여가활동의 내용과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는 개념이 있으며, 셋째는 규범론적(prescriptive and normative type)정의를 있음
Neulinger (1976)	여가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다만 노동과 여가활동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가활동은 개인이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자유로이 선택한다는 특징이 있을 따름이라는 것
Thomas (1980)	여가는 내적 즐거움과 충일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접근되며, 거기에 어떤 외적 강제나 압력은 철저히 배제되며 또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박재간, 김태현 (1986)	여가는 노동의 반대되는 개념이고 강제성 및 의무성이 희박한 선택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정신적, 정서적 자유, 휴식 즐거움 등과 관련이 있음
이윤정, 정순희 (2003)	노인기 에는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출가, 배우자의 사망 등을 경험하면서 ‘노동’의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여가’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임
국민생활여 가조사 (2006)	주관적 느낌, 활동, 휴식개념, 기능성, 자원인지 등 다양하게 인식됨 여가의 주된 목적은 즐거움 추구와 스트레스 해소, 연령이 높은 집단은 건강 목적도 중요

□ 여가활동의 구분

- 여가활동에 대해 일본의 가계조사(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연보(통계청), 국민여가조사(문화관광부)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령관광레저의 트렌드를 분석함에 있어 각 조사보고서의 세부 활동 별 추세를 비교분석함

<표3-2> 여가활동의 구분

가계조사(일본)	가계조사연보(한국)	국민여가조사(한국)	
교양오락서비스	교양오락서비스	문화예술관련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교양오락내구재	교양오락용품기구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서적,그외인쇄물	서적 및 인쇄물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기타사회활동

□ 레저의 정의

<표3-3> 레저개념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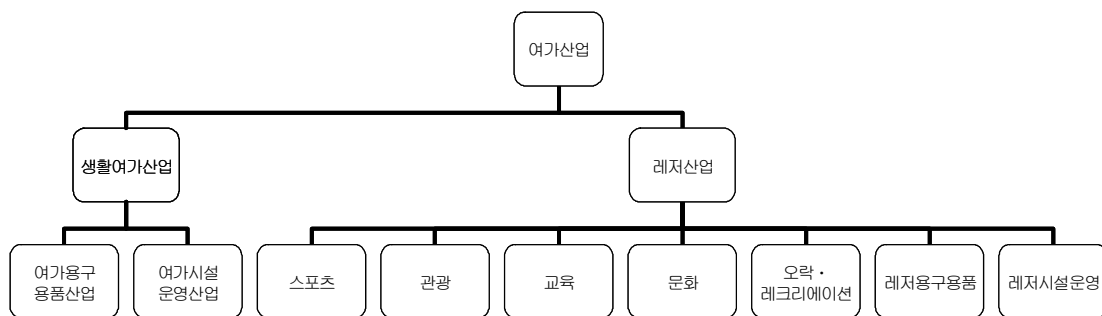
이홍윤 (1998)	레저산업이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여 시설 및 용구의 제공이나 제조, 판매 나아가 여가활동의 지도 등을 행하는 산업이라고 함(이홍윤,1998)
서천범 (1999)	레저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입지의존성, 공공성, 그리고 유행성을 지닌 산업군 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엄서호 (1998)	레저산업은 협의의 레저산업과 관광농업과 같은 1차 산업으로부터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레저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Tokildsen (1983)	영국의 상업적 여가를 크게 가정 중심의 여가, 사교적 위락, 예술과 교육, 스포츠 및 신체적 위락, 관광휴가 및 비공식적 위락, 그리고 기타 여가 등 6가지로 나누었음
Edginton (1995)	Edginton 등은 레저산업을 관광, 환대 및 식음료산업, 레저상품 제조업, 오락유흥업, 서비스용역업, 레저상품 판매업, 자연친화적 레저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일본여가개발센터 (1992)	여가제품산업과 여가 공간산업으로 크게 분류하였음. 여가 제품산업은 여가 활동에 참가할 때 사용되는 일체의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여가 공간 산업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유지 운영 하는 산업임
Crossley, Jamieson (1993)	여행 교통업(travel/transpotation industry),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 상업적 레크리에이션산업(local commercial recreation industry)으로 분류하고 있음

- 레저는 종종 여가개념과 혼용되고 있으나 여가에 비해 목적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레저백서, 2006)

□ 따라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휴식(TV, 사교모임 등)을 제외한 여유시간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활동을 레저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레저산업의 분류

- 여가를 목적성(레저)과 비목적성(생활여가)으로 나눌 때, 여가산업은 크게 생활여가 산업과 레저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생활여가산업은 여가용구용품산업과 여가운영시설산업으로 구분
- 레저산업은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교육산업, 문화산업, 오락·레크리에이션산업, 레저용구용품산업, 레저시설운영산업을 포함



<그림3-1> 레저산업의 분류

1-2. 고령관광레저의 범위

□ 고령관광레저의 정의

- 여가활동은 시간, 장소, 비용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관광활동보다 그 유형에 있어서 훨씬 광범위한 행태를 포함(조명환, 2005)
-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고령관광은 경제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관광의 개념을 포함해 왔으나, 최근에는 연금 등 고령층의 고정수입이 증가하고 소비력이 증대되어 경제적 관점에서의 고령관광도 중요시 되고 있음(김창수, 2005)
- 최근의 고령시장에서는 정부와 자녀의 보조를 받는 대신 자신의 경제력으로 여행을 즐기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2002)에 따르면, 그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외 관광참가의 노인여행자 인구가 30%이상 차지하며 증가추세에 있음
- 고령층은 비수기에 많이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산업의 비수기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김세범·김병석, 2005), 미국의 경우, 은퇴자들은 여가활동의 1순위로 여행을 꼽고 있음(오석운·오영찬, 2000)
- 한국관광공사(2006)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 고령 관광자의 숙박여행은 증가추세에 있음
- 따라서 노인은 장기여행(숙박여행)시 신체적 제한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휴식/휴양형태의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임

□ 2006 국민여가조사에서의 고령관광의 개념

- 국민여가조사(2006)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인지하는 여가의 이미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행을 24.3%, 취미생활 16.5%, 스포츠 레저활동 11.6%, 노는 것 10.4%, 등산 3.8% 순으로 여행을 여가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실제 많이 경험하는 여가활동별 경험률(12개)에 여행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50

이상 시니어층이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라디오 청취, 목욕/사우나,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산책, 낮잠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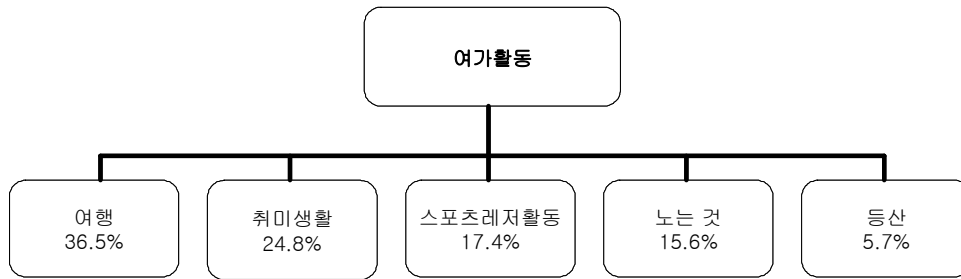
- 50대는 관계중심의 여가(사교모임 등), 60대 이상은 건강기능성여가(산책 등)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준고령층과 고령층의 여가행태에도 차이가 있음

□ 노인관광시장의 특성상 사회적 성격과 경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님(최성재, 1999)

- 노인관광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경제시장과는 다르며 복지차원의 성격을 포함하는 사회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미국을 포함하는 선진국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3-4〉 노인들의 욕구와 행동의 특성

한상겸(2004)	조구현(2004)	오석윤,오영환(2000)
장기간 여행	여성참여가 압도적	다른 연령층과 비슷하게 구매하지만 가격에 덜 민감
대중교통수단 더 이용	그룹단위의 패키지투어를 선호 (그러나 50대와 고소득층은 개인여행을 하는 경향)	식사나 구매 시 장소의 전반적 느낌과 분위기 중시
패키지여행을 선호	60세 이상은 휴식과 기분전환으로 친지방문 및 역사유적지 관람, 60세 이하의 야외 레크레이션이나 놀이 참가를 선호	같이 쇼핑하고, 공동 의사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음
호텔숙박을 선호	정보활용 면에서 연령층 간 차이가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나, 직접적 구매경험을 더욱 중시함	구매 시 망설임으로 오랜 시간이 걸림
혼자여행하기를 꺼림	신용카드 사용에 비판적 (예: 미국노인여성 60%가 신용거래에 부정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선호
휴양지의 의료시설 등 신뢰할 만한 지원시설과 정보서비스를 원함	여행 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관광종사원에 의존하는 경향	구매행동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 있음
휴양지 리조트시설이 고령자 친화적인지 관심	만족 시 일정 회사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향	구매 시 사은품이나 보상품을 받기를 원함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고령자도 여행의 기회를 희망	신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사고 시 보험혜택에 관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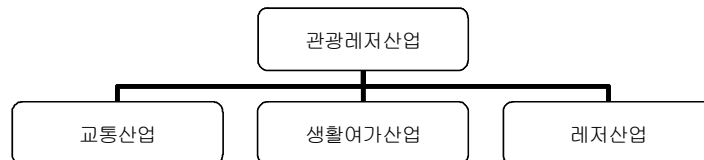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2006

<그림3-2 >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 결론적으로 고령관광레저는 고령자들이 숙박여행을 가서 행하는 모든 여가 활동과 노인의 특성상 요양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 할 수 있음

□ 고령관광레저산업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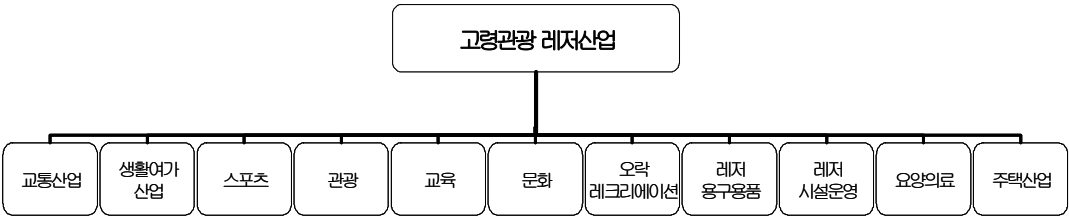
- 관광레저산업은 크게 교통산업, 생활여가산업, 레저산업으로 구분됨



<그림3-3> 관광레저산업의 분류

- 국민여행실태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레저의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관광레저의 개념은 관광이외의 여행의 목적으로 친구, 친지의 방문 등 이 있으므로 좀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특히 고령들은 당일관광보다는 숙박관광을 선호하고 관광의 목적이 휴식,휴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관광레저산업과는 보다 더 다양한 산업이 추가되어야 함
- 즉, 고령관광레저산업은 여가의개념을 포한하는 생활여가산업과 여가레저산업이외에도 이동에 따르는 교통산업과 요양의료산업 그리고 장기체류 또는 거주 목적의 주택산업

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그림3-4)



<그림3-4>고령관광레저산업의 분류

2. 고령관광레저의 현황

2-1. 고령관광 현황

□ 1988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령층(50세 이상 기준)의 전반적인 관광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고령자 통계(통계청, 2006)에 의하면 고령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노화는 50세가 넘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유공순,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 여행실태를 50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정하여 트렌드를 분석함
- 국민여행실태조사는 1999년과 2001년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12,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최근의 2004, 2005의 자료를 중심으로 경향을 분석함
-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자료는 연도별로 조사방법이 상이하여 연간통합통계표 작성시 표기가 어렵거나 조사가 안된 부분은 'n/a'로 표기함

□ 국내여행경험률

<표3-5> 50대 이상 국내여행경험률

(단위:%)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448)	(457)	(329)	(320)	(3,448)	(3,554)	(448)	(457)	(329)	(320)	(3,448)	(3,554)
있다	24.9	29.8	51.7	54.4	72.5	71.4	47.3	53.9	73.3	80.9	74.6	77.5
없다	75.1	70.2	48.3	45.6	27.5	28.6	52.7	46.1	26.7	19.1	25.4	22.5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1999년 이후로 국내여행 경험률은(50대 이상 고령자 기준)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숙박관광 71.4%, 당일관광 77.5%의 국

내 여행경험율을 보임

□ 국내여행 참가횟수

〈표3-6〉 국내여행 참가횟수

(단위:%)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448)	(457)	(329)	(320)	(3,448)	(3,554)	(448)	(457)	(329)	(320)	(3,448)	(3,554)
없음	75.1	70.2	48.3	45.6	26.0	28.9	52.7	46.1	26.7	19.1	23.5	23.1
1회	19.4	25.0	31.9	27.5	24.0	28.4	32.1	40.4	30.7	20.0	14.2	19.0
2회	4.6	4.5	11.6	16.9	25.8	17.2	8.7	8.8	13.7	15.9	21.2	14.7
3회	0.5	0.3	4.6	5.9	11.6	13.1	3.0	1.9	7.9	9.7	12.0	11.1
4회	0.2	—	2.4	2.5	4.3	5.1	0.6	1.6	2.4	8.4	6.8	5.2
5회	0.1	—	0.3	0.3	2.0	3.0	0.5	0.5	2.4	4.1	3.7	4.8
6회	— (6회 이상)	— (6회 이상)	0.0	0.9	2.8	1.0	0.5	n/a	2.4	1.9	3.0	4.2
7회	n/a	n/a	0.0	0.0	0.6	0.9	0.3 (7-8회)	0.2 (7-8회)	2.7	1.6	2.0	3.9
8회	n/a	n/a	0.3	0.0	0.8	0.6	n/a	n/a	1.8	2.8	3.5	2.3
9회	n/a	n/a	0.3	0.0	1.1	0.2	0.1 (9-10회)	0.1 (9-10회)	0.9	1.9	1.7	1.1
10회 이상	n/a	n/a	0.3	0.3	1.0	1.5	n/a	n/a	0.6	2.8	0.2	1.2
11회	n/a	n/a	n/a	n/a	n/a	n/a	1.4 (11회 이상)	0.4 (11회 이상)	0.6	2.2	0.6	1.5
12회	n/a	n/a	n/a	n/a	n/a	n/a	n/a	n/a	0.9	0.9	1.0	1.9
13회	n/a	n/a	n/a	n/a	n/a	n/a	n/a	n/a	0.6	1.3	0.5	1.1
14회	n/a	n/a	n/a	n/a	n/a	n/a	n/a	n/a	0.9	0.9	0.2	0.9
15회	n/a	n/a	n/a	n/a	n/a	n/a	n/a	n/a	0.0	1.6	0.6	0.1
16회	n/a	n/a	n/a	n/a	n/a	n/a	n/a	n/a	0.0	0.6	0.3	0.5
17회	n/a	n/a	n/a	n/a	n/a	n/a	n/a	n/a	0.3	0.0	0.5	0.2
18회	n/a	n/a	n/a	n/a	n/a	n/a	n/a	n/a	0.3	0.3	0.7	0.1
19회	n/a	n/a	n/a	n/a	n/a	n/a	n/a	n/a	0.0	0.0	0.0	0.4
20회	n/a	n/a	n/a	n/a	n/a	n/a	n/a	n/a	0.3	0.6	0.4	0.3
21회 이상	n/a	n/a	n/a	n/a	n/a	n/a	n/a	n/a	3.6	3.4	3.3	2.5
평균(회)	0.30	0.35	0.9	1.00	1.91	2.03	1.10	0.83	3.66	4.68	3.50	4.46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고령층의 국내여행 참가횟수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특히 숙박관광회수증가)

○ 숙박관광의 평균참여횟수가 2.03회(2005년 기준), 당일관광의 평균참여횟수가 4.46회(2005년 기준)임

- 숙박관광은 1회가 가장 많았고(2005년 28.4%) 당일관광 역시 1회가 가장 많았음
(2005년 19.0%)

□ 국내여행 방문지

<표3-7> 국내여행 방문지

(단위:%)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185)	(457)	(290)	(329)	(508)	(748)	n/a	(658)	n/a	(489)	(761)	(1,316)
서울	16.4	5.6	3.4	1.8	12.4	9.9	n/a	5.5	n/a	5.1	7.5	6.1
부산	0.7	1.2	5.5	4.6	4.3	3.1	n/a	6.1	n/a	7.0	2.3	2.7
대구	n/a	n/a	1.0	0.0	2.0	2.4	n/a	1.4	n/a	1.2	3.5	5.3
인천	n/a	n/a	0.7	0.6	1.4	2.3	n/a	1.8	n/a	1.0	3.6	3.6
광주	n/a	n/a	2.1	0.9	3.5	1.4	n/a	1.2	n/a	0.8	1.2	1.7
대전	n/a	n/a	0.3	0.3	2.2	2.2	n/a	1.8	n/a	1.4	1.5	1.7
울산	n/a	n/a	0.7	0.3	0.0	0.9	n/a	0.3	n/a	0.6	1.4	3.1
경기	3.9	3.8	3.1	6.1	11.2	10.6	n/a	16.6	n/a	20.7	14.2	16.4
강원	8.7	27.2	30.3	31.0	16.3	16.2	n/a	7.0	n/a	7.6	10.1	8.2
충북	6.9	5.5	3.4	4.0	6.6	4.6	n/a	3.2	n/a	6.3	6.9	5.7
충남	6.0	3.2	3.8	8.2	7.4	6.6	n/a	7.9	n/a	9.8	11.0	7.8
전북	7.9	0.3	6.9	3.6	4.1	4.5	n/a	10.9	n/a	5.9	5.1	6.0
전남	12.2	9.6	9.0	8.2	8.4	9.2	n/a	10.9	n/a	10.0	10.8	9.8
경북	11.1	10.3	7.9	9.4	7.7	9.5	n/a	14.1	n/a	12.5	8.8	10.2
경남	15.4	12.9	13.8	12.8	6.9	11.2	n/a	10.8	n/a	9.8	11.4	10.7
제주	8.4	1.9	7.9	8.2	5.3	4.7	n/a	0.5	n/a	0.2	0.6	1.1
북한	2.4 (기타)	1.6 (기타)	0.0	0.0	0.3	0.7	n/a	n/a	n/a	n/a	n/a	n/a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국내여행 중 고령숙박관광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강원지역(2005년 기준 16.2%)
이고 그 다음으로는 경남지역(2005년 기준 11.2%)임
- 국내여행 중 당일관광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경기도지역(2005년 기준 16.4%) 이
고 다음으로는 경북(10.2%)임
- 숙박여행지로 강원도를 찾는 비율이 줄고 경기도를 찾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여행 일수

〈표3-8〉 국내여행 일수

(단위: %)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157)	(178)	(279)	(320)	(3,448)	(3,554)	n/a	(178)	n/a	(2,001)	(3,448)	(3,554)
없음	n/a	n/a	n/a	45.6	26.0	28.9	n/a	n/a	n/a	32.0	23.5	23.1
모름/무응답	4.1	1.9	n/a	n/a	n/a	n/a	n/a	4.7	n/a	n/a	n/a	n/a
1일	n/a	n/a	n/a	n/a	n/a	n/a	n/a	34.4	n/a	19.1	14.2	19.0
2일	39.0	34.4	52.7	12.5	13.6	17.2	n/a	38.5	n/a	20.0	21.2	14.7
3일	28.5	38.5	32.2	9.7	8.2	8.7	n/a	17.9	n/a	15.9	12.0	11.1
4일	16.8	17.9	7.5	7.8	9.5	9.8	n/a	3.1	n/a	9.7	6.8	5.2
5일	7.4	3.1	1.8	3.8	7.8	5.6	n/a	1.9	n/a	8.4	3.7	4.8
6일	1.7	1.9	0.7	5.9	6.5	5.9	n/a	1.8	n/a	4.1	3.0	4.2
7일	0.9	1.8	5.0 (7일 이상)	4.4	28.5	4.9	n/a	0.4 (7박 이상)	n/a	1.9	2.0	3.9
8일	1.6 (7박 이상)	0.4 (7박 이상)	n/a	3.8	4.76	2.8	n/a	n/a	n/a	1.6	3.5	2.3
9일	n/a	n/a	n/a	2.2	2.8	4.3	n/a	n/a	n/a	2.8	1.7	1.1
10일	n/a	n/a	n/a	0.9	5.1	1.9	n/a	n/a	n/a	1.9	0.2	1.2
11일	n/a	n/a	n/a	3.4	1.5	1.5	n/a	n/a	n/a	2.8	0.6	1.5
12일	n/a	n/a	n/a	n/a	1.7	1.2	n/a	n/a	n/a	2.2	1.0	1.9
13일	n/a	n/a	n/a	n/a	0.8	1.0	n/a	n/a	n/a	0.9	0.5	1.1
14일	n/a	n/a	n/a	n/a	2.2	1.7	n/a	n/a	n/a	1.3	0.2	0.9
15일	n/a	n/a	n/a	n/a	1.0	0.8	n/a	n/a	n/a	0.9	0.6	0.1
16일	n/a	n/a	n/a	n/a	0.8	0.4	n/a	n/a	n/a	1.6	0.3	0.5
17일	n/a	n/a	n/a	n/a	0.1	0.4	n/a	n/a	n/a	0.6	0.5	0.2
18일	n/a	n/a	n/a	n/a	0.1	0.1	n/a	n/a	n/a	0.0	0.7	0.1
19일	n/a	n/a	n/a	n/a	2.4	0.9	n/a	n/a	n/a	0.3	0.0	0.4
20일	n/a	n/a	n/a	n/a	2.3	0.3	n/a	n/a	n/a	0.0	0.4	0.3
21일이상	n/a	n/a	n/a	n/a	2.3	1.7	n/a	n/a	n/a	0.6	3.3	2.5
평균(일)	n/a	n/a	n/a	2.79	6.17	5.02	n/a	n/a	n/a	3.4	3.50	4.46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고령층의 숙박여행일수의 평균은 5.02일(2005년 기준)으로 주 5일제의 시행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당일여행의 평균은 4.46일(2005년 기준)으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여행 시기

<표3-9> 국내여행시기

(단위: %)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157)	(178)	(916)	(1,237)	(1,268)	(2,064)	n/a	n/a	(637)	(924)	(761)	(1,316)
주중	64.8	65.8 (평일/ 출장기간)	36.6	36.5	45.9	39.9	n/a	n/a	(35.2)	38.4	51.4	43.5
주말	n/a	n/a	45.2	50.7	42.3	48.3	n/a	n/a	51.3	54.3	43.2	52.2
휴가/ 방학	10.8	12.6	6.0	6.2	3.1	4.1	n/a	n/a	3.0	1.4	0.8	0.8
명절	n/a	n/a	1.7	0.7	5.3	5.3	n/a	n/a	0.4	0.2	1.3	1.2
연휴/ 공휴일	19.3	19.7	10.6	5.9	3.3	2.0	n/a	n/a	10.2	0.0	3.1	2.0
모름/ 무응답	5.1	1.9	0.0	0.0	0.1	0.3	n/a	n/a	0.0	5.6	0.2	0.4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고령 여행자들은 주중에도 주말과 비슷한 비율로 여행을 많이 하고 연휴/공휴일 여행자는 줄어 든 반면 명절여행은 증가
- 2005년 기준, 숙박관광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주말(48.3%)과 주중(39.9%)을 이용하고 있고 명절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5.3%) 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해 볼만 함
- 당일관광 역시 주말과 주중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명절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1.2%)은 숙박관광에 비해 낮은 편임

□ 국내여행 동반자 수

<표3-10> 국내여행 동반자 수

(단위: %)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157)	(179)	(279)	(313)	(2,922)	(3,165)	n/a	(330)	(637)	(479)	(4,139)	(5,105)
1명	(5)	3.6	2.9	5.8	15.7	15.3	3.2	(5)	2.5	3.1	17.0	11.6
2-3명	22.7	19.5	31.5	24.9	38.7	38.0	8.1	9.7	33.1	27.1	30.0	32.9
4-5명	10.9	10.4	21.5	29.7	17.5	18.4	8.0	10.3	24.6	27.3	15.3	15.2

6-10명	13.1	18.0	16.1	18.8	13.6	11.5	n/a	14.3	17.6	15.9	10.7	10.4
11-20명	8.3	10.2	8.2	11.2	5.1	6.6	n/a	13.7	6.9	8.8	6.3	7.0
21명 이상	33.4	24.5	19.7	9.6	9.5	10.2	n/a	46.8	15.2	17.7	20.7	23.0
평균(명)	n/a	n/a	11.71	8.66	7.31	7.55	n/a	n/a	11.45	11.04	12.88	12.38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고령자들은 숙박관광시 동반자 수가 평균적으로 7.55명(2005년 기준)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음
- 당일관광은 동반자 수가 평균적으로 12.38명(2005년 기준)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당일관광의 동반자 수가 더 많은 이유로는 단체 및 동호회의 여행이 숙박관광에 비해 많은 것으로 사료됨

□ 국내여행 동반자유형

<표3-11> 국내여행 동반자 유형

(단위: %)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158)	(203)	(302)	(384)	(508)	(748)	(332)	(368)	(697)	(518)	(761)	(1,316)
혼자서	4.6	2.1	2.6	4.7	15.7	15.3	2.9	4.3	2.3	2.7	17.0	11.6
가족/ 친지	32.6	26.8	42.4	44.3	52.9	54.1	18.7	20.7	37.6	33.0	30.1	37.6
친구/ 연인	34.7	39.5	33.4	38.0	19.0	16.2	38.0	40.8	40.2	41.3	24.6	22.2
직장/ 직장내 단체	2.9	4.2	3.3	3.1	1.9	1.8	1.5	2.2	2.2	4.6	1.9	1.4
학교/ 학교내 단체	0.8	0.6	0.0	0.0	0.0	0.0	1.3	1.0	0.3	0.2	0.1	0.4
종교 단체	2.1	2.2	2.9	1.8	3.1	2.8	2.6	4.6	3.4	1.2	4.1	4.3
유관/ 지역 단체	22.3	21.1	8.6	7.3	3.5	3.3	3.1	25.8	7.6	15.4	8.5	9.6
동호회	n/a	n/a	0.7	0.5	2.8	4.7	n/a	n/a	n/a	n/a	8.8	9.6
여행사 모집	n/a	n/a	n/a	n/a	n/a	n/a	0.6	n/a	0.6	1.0	0.8	0.5
기타	n/a	0.5	6.0	0.3	1.1	1.9	1.0	0.5	5.9	0.6	4.2	2.9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숙박관광 및 당일관광의 동반자 유형으로 고령여행자들은 가족/친지, 친구/연인, 동호회 순으로 선호함
- 숙박관광에 있어서 가족/친지의 유형은 늘어나고 있으며(54.1%, 2005년 기준) 친구/연인의 유형은 줄어들고 있음(16.2%, 2005년 기준)
- 당일관광에 있어서 홀로여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11.6%, 2005년 기준) 동호회의 여행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9.6 %, 2005년 기준)

□ 국내여행 방문목적

<표3-12> 국내여행 방문목적

(단위: %)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157)	(178)	n/a	n/a	(1,268)	(2,064)	n/a	n/a	n/a	n/a	(761)	(1,316)
여가/ 위락/ 휴가	91.9	82.3	n/a	n/a	43.9	44.9	n/a	n/a	n/a	n/a	56.8	61.8
친구/ 친지 방문	n/a	n/a	n/a	n/a	45.9	43.3	n/a	n/a	n/a	n/a	14.8	17.0
사업/ 전문 활동	1.9	3.4	n/a	n/a	3.4	4.4	n/a	n/a	n/a	n/a	7.2	5.8
건강/치료	n/a	n/a	n/a	n/a	0.7	0.7	n/a	n/a	n/a	n/a	6.9	4.2
종교/ 순례	1.3	2.5	n/a	n/a	2.3	2.6	n/a	n/a	n/a	n/a	4.3	5.0
기타	0.4	0.3	n/a	n/a	3.8	4.1	n/a	n/a	n/a	n/a	9.5	5.9
모름/ 무응답	4.5	1.9	n/a	n/a	0.0	0.1	n/a	n/a	n/a	n/a	0.4	0.2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고령자들의 여행 방문목적으로는 여가/위락/휴가 , 친구/친지방문 순으로 나타남
- 당일관광에 있어서는 숙박관광과 달리 건강/치료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숙박관광 0.7%, 당일관광 5.8% ,2005년 기준) 의 비중이 있게 나타남

□ 국내여행 방문지활동

〈표3-13〉 국내여행 방문지활동

(단위: %)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260)	(366)	(503)	n/a	(508)	(748)	(466)	(513)	(1,031)	n/a	(761)	(1,316)
자연 명승/풍경 감상	41.5	40.1	40.0	n/a	41.6	43.8	32.2	36.6	37.0	n/a	46.9	48.2
문화 유적지 방문	9.6	12.1	13.5	n/a	14.6	10.5	15.8	11.0	9.9	n/a	11.2	6.3
레저시설/ 놀이 공원 방문	1.3 (농장, 과수원 놀이)	3.9 (농장, 과수원 놀이)	1.2	n/a	3.6	2.5	0.7	0.7 (농장, 과수원 놀이)	0.8	n/a	2.1	0.8
유흥/ 오락	12.8	16.9	13.7	n/a	10.3	5.5	25.1	26.8	14.6	n/a	10.2	6.9
축제/ 이벤트 참가	2.0 (명절, 민속행사 참가)	0.9 (명절, 민속행사 참가)	3.2	n/a	2.3	1.2	0.5	1.1 (명절, 민속행사 참가)	0.3	n/a	1.1	0.8
등산/캠핑/ 하이킹	4.0	3.7	5.0	n/a	4.2	7.6	4.7	3.8	11.0	n/a	13.7	19.7
수영/ 해변 활동	4.2	3.2	5.4	n/a	7.3	6.3	2.6	4.0	2.2	n/a	4.2	3.9
낚시	1.9	1.7	0.8	n/a	2.8	3.2	1.4	2.0	4.9	n/a	0.5	1.9
온천	12.5	8.5	8.3	n/a	4.6	4.1	11.4	7.7	14.7	n/a	3.9	2.2
종교/ 순례 활동	n/a	n/a	n/a	n/a	3.3	2.8	n/a	n/a	n/a	n/a	5.2	5.3
각종레포 츠 활동	n/a	n/a	n/a	n/a	1.4	0.5	1.6	n/a	n/a	n/a	1.7	0.5
스포츠 관람	2.1	0.2	1.6	n/a	0.1	0.1	n/a	0.1	1.1	n/a	0.3	0.0
가족/ 친지 방문	n/a	n/a	n/a	n/a	49.2	45.4	n/a	n/a	n/a	n/a	14.3	17.6
친구 방문	n/a	n/a	n/a	n/a	3.2	4.2	n/a	n/a	n/a	n/a	3.8	2.3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가	8.1 (도시구경 5.7 + 산업시설 구경 1.2)	6.9 (도시구경 5.7 + 산업시설 구경 1.2)	1.4	n/a	0.8	2.5	2.2	도시구경 (3.1), 산업시설 구경 (0.9)	0.2	n/a	1.3	2.2
회의 참가/ 시찰	n/a	n/a	n/a	n/a	2.0	2.0	n/a	n/a	n/a	n/a	2.6	1.9
쇼핑	n/a	n/a	n/a	n/a	4.0	2.6	n/a	n/a	n/a	n/a	3.2	3.9
휴식/ 휴양	n/a	n/a	n/a	n/a	36.1	37.3	n/a	n/a	n/a	n/a	24.1	36.3
기타	n/a	0.9	0.2	n/a	7.7	7.8	0.3	2.1	0.7	n/a	18.6	15.0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숙박관광에 있어서 고령자들의 방문지 활동은 가족/친지 방문(45.4%), 자연 명승/풍경감상(43.8%), 휴식/휴양(37.3%), 문화유적지 방문(10.5%) 순임
- 당일관광에 있어서 방문지 활동은 2005년 기준 자연 명승/풍경감상(48.2%), 휴식/휴양(36.3%), 등산/캠핑/하이킹(19.7%), 가족/친지방문(14.3%) 순임

□ 국내여행 교통수단

<표3-14> 국내여행 교통수단

(단위: %)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172)	(202)	(301)	(326)	(508)	(748)	(307)	(340)	(650)	(486)	(761)	(1,316)
일반열차 (새마을/ 무궁화)	11.1	3.5	11.3	3.4	12.1	5.7	1.7	3.0	1.1	1.0	3.5	2.6
고속철도 (KTX)	n/a	n/a	n/a	n/a	0.8	4.7	n/a	n/a	n/a	n/a	2.3	0.9
지하철	n/a	n/a	0.0	0.6	10.4	0.8	1.8	1.1	1.5	2.3	7.5	3.0
고속버스	15.5	10.8	4.3	6.1	4.5	11.9	1.7	4.1	2.5	2.5	7.7	3.7
일반버스	6.5	5.1	2.0	5.8	10.3	6.2	19.0	13.5	10.9	7.8	0.7	6.7
전세/ 관광버스	16.8	6.1/ 32.9	22.6	15.7	0.0	10.2	53.2	14.4	21.8	24.9	25.7	28.0
택시	0.7	0.8	0.7	0.6	0.3	0.2	3.2	2.1	0.3	0.6	0.3	0.4
자가 차량	8.8	10.9	41.9	52.1	57.5	56.9	8.4	13.6	55.5	51.6	49.9	53.9
렌트 차량	n/a	n/a	n/a	n/a	7.0	0.6	n/a	n/a	n/a	n/a	0.8	0.9
비행기	8.2	15.4	10.3	9.2	0.9	3.9	n/a	n/a	0.3	n/a	0.0	0.1
선박	7.2	7.6	0.3	0.6	0.9	1.4	0.2	n/a	0.5	0.2	0.0	0.2
자전거/ 오토바이	0.4	n/a	0.0	n/a	0.0	0.1	0.9	자전거 (-), 오토바이 (0.3)	0.3	n/a	2.7	0.1
기타	n/a	0.7	0.3	5.9	0.3	1.2	n/a	0.5	0.0	9.1	1.8	1.1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교통수단에 있어서 고령여행자들은 숙박관광(56.9%), 당일관광(53.9%) 모두 과반 수 이상 자가차량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관광객이 당일관광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KTX의 개통으로 이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비싼 비용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사료됨

□ 국내여행 비용 주 지불자

〈표3-15〉 국내여행 비용 주 지불자

(단위: %)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1988	1991	1999	2001	2004	2005
사례 수	n/a	n/a	n/a	n/a	(508)	(748)	n/a	n/a	n/a	n/a	(761)	(1,316)
본인 자신	n/a	n/a	n/a	n/a	72.5	75.8	n/a	n/a	n/a	n/a	78.2	81.0
배우자	n/a	n/a	n/a	n/a	10.4	12.1	n/a	n/a	n/a	n/a	6.8	6.3
부모	n/a	n/a	n/a	n/a	0.0	0.0	n/a	n/a	n/a	n/a	0.0	0.0
자녀	n/a	n/a	n/a	n/a	5.2	4.4	n/a	n/a	n/a	n/a	2.8	2.2
형제/ 자매	n/a	n/a	n/a	n/a	0.9	0.5	n/a	n/a	n/a	n/a	0.5	0.6
친구/ 연인	n/a	n/a	n/a	n/a	0.8	0.4	n/a	n/a	n/a	n/a	2.3	2.2
직장/ 소속 단체	n/a	n/a	n/a	n/a	8.4	4.3	n/a	n/a	n/a	n/a	6.0	5.7
기타	n/a	n/a	n/a	n/a	1.7	1.9	n/a	n/a	n/a	n/a	3.4	2.1
모름/ 무응답	n/a	n/a	n/a	n/a	0.0	0.5	n/a	n/a	n/a	n/a	n/a	n/a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88-2005)

- 국내여행 시 비용은 대부분 본인자신이 지불하는 것(숙박관광 75.8%, 당일관광 81%, 2005년 기준) 으로 조사됨

2-2. 고령레저 현황

- 2006년 국민여가조사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항목별 중복응답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령층(50세 이상 기준)의 전반적인 여가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여가의 목적

<표3-16> 여가의 목적

(단위: %)

	전체	연령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의 수)	3000	331	394
개인적인 즐거움	36.2	29.0	30.7
스트레스 해소	23.3	19.3	15.7
건강	19.0	32.9	38.1
대인관계 및 교제	8.7	9.4	8.4
일의 능률 향상	4.6	3.9	3.6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습득	4.3	3.3	1.8
자아실현	3.6	1.8	1.8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여가의 목적으로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50대는 건강이 32.9%, 개인적인 즐거움 29.0%, 스트레스 해소 19.3%순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건강이 38.1%, 개인적인 즐거움이 30.7%, 스트레스 해소가 15.7%로 나타남

□ 주로 경험하는 여가활동별 경험률

〈표3-17〉 여가활동별 경험률

(단위: %)

	전체	연령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의 수)	3000	331	394
TV시청/라디오청취	68.3	78.2	83.8
잡담/통화하기	23.6	22.7	31.2
게임	23.4	3.3	0.8
목욕/사우나	22.9	31.4	40.9
음주	22.1	27.5	26.9
신문/잡지보기	20.5	27.2	26.9
영화보기	20.4	4.2	0.5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18.3	34.4	35.3
쇼핑	17.7	15.4	15.7
산책	16.9	27.2	33.8
낮잠	16.1	22.1	36.3
인터넷서핑/채팅	15.5	2.4	-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고령층이 주로 경험하는 여가활동별 경험률로는 TV시청/라디오 청취가 가장 높음
(50대 78.2%, 60대이상 83.8%)
- 전체의 경험률에 비해 게임, 영화보기, 쇼핑, 인터넷서핑/채팅 만 제외하고는 평균이상의 비율을 나타냄
- 고령자 일수록 여가시간의 증대로 여가활동 경험률이 전체적으로 증가

□ 세대별 여가특성

〈표3-18〉 세대별 여가특성

세대별	여가특성
10~20대	온라인 활동 중심(게임)
30대	다양한 여가생활 경험
40~50대	관계중심 여가(사교모임)
60대이상	건강기능성 여가(산책)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고령으로 갈수록 건강기능성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비용 및 충분도 평가

<표3-19> 여가비용 및 충분도 평가

	전체	성인	50대	60대 이상
5점 척도 충분도 평균	2.81	2.81	2.81	3.00
(단위: 월평균, 만원)				
현재 여가비용 평균	14.2	16.1	15.9	11.7
추가 희망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현재 여가비용)	10.1	11.4	11.8	8.4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고령으로 갈수록 성인평균보다 여가비용의 평균이 줄어들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현재 여가비용의 70%이상의 추가 여가비용을 지불 할 의사가 있음
- 50대는 월평균 15만 9천원을 사용하고 60대 이상은 11만 7천원을 사용
- 50대(118,000원)는 추가 여가비용을 전체의 평균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8만 4천원으로 전체의 평균보다 덜 필요로 하고 있음

□ 공공 여가시설 이용률

<표3-20> 공공 여가시설 이용률

(단위: %)

	전체	연령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의 수)	3000	331	394
근린공원/생활체육공원	60.6	60.7	65.0
국민체육센터	23.2	19.3	19.0
산림욕장	14.3	18.7	17.5
동물원/식물원	13.0	8.8	6.3
종합사회복지관	12.2	13.3	19.0
문화회관	11.6	6.9	7.6
주민자치센터	11.5	14.2	17.5
국립도서관	11.5	1.8	3.0
국립박물관	8.4	7.9	4.1
교적지/성/능/전적지	7.5	6.6	8.4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근린공원/생활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의 문화회관, 국공립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률은 전체평균 이하이나 60대이상 고령자는 고적지/성/능/전적지를 찾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가활동별 이용의향

〈표3-21〉 여가활동별 이용의향

(단위: %)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취미, 오락 활동	휴식 활동	기타 사회 활동
현 수준	55.0	68.2	59.5	57.1	36.5	44.6	55.3	60.5
증가	42.7	25.3	33.9	36.1	60.2	51.3	32.9	37.0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전체적으로 여가활동별 이용의향은 2006년 가장 저조(36.5%)하지만 향후, 관광활동(60.2%)이 가장 증가 할 것으로 보임
- 현 수준에서는 문화예술참여활동 > 스포츠관람활동 > 스포츠참여활동 > 기타활동 순으로 나타남
- 앞으로 이용의향이 증가할 활동은 관광활동 > 취미오락활동 > 문화예술관람활동 > 기타사회활동 순으로 나타남

□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후 새로 시작한 여가활동

〈표3-22〉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후 새로 시작한 여가활동

(단위: %)

		전체	50대
새롭게 시작한 여가활동	응답자의 수	84	12
	영화보기	17.9	-

	여행	16.7	25
	등산	14.3	25
	헬스	9.5	-
	산책	7.1	-
	운동	7.1	-
	국내숙박여행	7.1	8.3
		전체	50대
원하던 여가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	응답자의 수	188	18
	비용 때문에	46.8	38.9
	마땅히 할 장소가 없어서	13.8	16.7
	게을러서	11.7	16.7
	정보가 부족해서	11.7	5.6
	함께 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6.4	5.6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50대의 경우 주 5일제 시행이후 새로 늘어난 여가활동은 여행과 등산, 국내숙박여행 순으로 나타나 향후 여행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원하던 여가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로는 38.9%가 비용 때문이고 마땅히 할 장소가 없어서와 게을러서가 16.7%로 나타났음

□ 여가활성화 희망제도

<표3-23> 여가활성화 희망제도

(단위: %)

	전체	연령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의 수)	2551	331	394
다양한 여가시설 확충 및 개방	78.6	76.7	78.2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3.3	64.0	63.7
여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41.9	47.7	39.6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37.0	39.0	48.5
여가 관련 교육기회 제공	25.0	25.7	22.3
여가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24.6	19.0	21.3
여가친화적 환경제공	18.7	15.1	16.0
여가생활 관련 법규와 제도개선	10.2	11.5	9.6
기타	0.1	0.3	0.3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전체적으로 여가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제도로는 다양한 여가시설 확충 및 개방으로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높게 나타남

- 그밖에 여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을 필요로 함

□ 건립 희망시설

<표3-24> 건립 희망시설

(단위: %)

	전체	연령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의 수)	2551	331	394
복지시설	86.8	92.1	91.1
국공립여가시설	77.3	79.8	74.4
의료시설	70.7	73.7	85.3
환경시설	32.8	28.7	30.7
교육시설	30.3	23.6	17.3
기타	0.7	0.9	0.3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국민여가조사

- 건립희망시설로는 대다수 국민이 복지시설이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밖에 국공립여가시설, 의료시설, 환경시설, 교육시설 순으로 건설희망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의료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함

2-3. 세부항목별 관광레저활동 현황

□ 한일 교양오락서비스 항목비교

- 일본 총무성은 가계조사에서 교양오락비를 교양오락서비스, 교양용 내구재, 서적/그 외 인쇄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한국 통계청도 교양오락비를 교양오락서비스, 교양오락용품기구, 서적 및 인쇄물로 일본과 유사하게 분류함
- 한일 모두 교양오락비의 세부항목으로 여가 및 관광관련 유사항목들을 두고 있으므로 이후 분석목적으로 <표3-25>과 같이 명칭을 통합

<표3-25> 한일 교양오락비 명칭비교

한국	일본	한일통합명칭
공연장입장료, 문화시설입장료	영화,연극등 입장료, 문화시설입장료	문화시설입장료
교육적 강습료, 교양오락강습료, 기타강습료	음악수업료, 가사수업료, 그외 수업료, 그외 교양수업료, 그외 교육수업료	교양오락수업료
운동경기관람료	스포츠관람료	스포츠관람료
운동강습료	스포츠수업료	스포츠수업료
수영장이용료,볼링장이용료,운 동오락시설 및 기구이용료, 운동시설이용료	스포츠시설 사용료	스포츠 시설사용료
숙박비	숙박료	숙박료
단체여행비	국내 패키지여행, 국외 패키지여행	패키지여행비
어학강습료	어학수업료	어학수업료
자동차 운전교습비	자동차교습료	자동차교습료
노래방이용료, 기타교양오락시설 이용료, 사진촬영인화료, 기타교양오락서비스	유원지입장 놀이기구비, 그외 입장게임료, 사진현상비	기타교양오락비
비디오테이프대여료, 교양오락기구대여료	교양오락대여료	교양오락대여료
PC방이용료	인터넷접속료	인터넷사용료
TV시청료	NHK 방송수신료	TV시청료
유선방송시청료	케이블TV수신료, 그외 수신료	유선방송시청료
비디오촬영, 교양오락기구 수리비	회비, 기타	기타

자료: 통계청(2006) 가계조사연보; 일본 총무성 통계국(2006) 가계조사

□ 한국 교양오락서비스 세부지출 비율

○ 통계청 자료에 의거 교양오락서비스(한국)의 지출항목별 추세는 <표3-26>와 같음

<표3-26> 한국 교양오락서비스 세부지출 비율

구분	문화 시설 입장료	교양 오락 수업료	스포츠 관람료	스포츠 수업료	스포츠 시설 사용료	숙박료	패키지 여행비	어학 수업료	자동차 교습료	기타 교양 오락비	교양 오락 대여료	인터넷 사용료	T V시 청료	유선 방송 시청료	기타	총액 (원)
1982	8.9%	10.8%	0.6%	n/a	5.3%	5.3%	33.1%	n/a	n/a	16.4%	n/a	n/a	16.7%	n/a	3.0%	38,616
1983	6.6%	12.7%	0.4%	n/a	5.2%	2.8%	36.7%	n/a	n/a	14.8%	n/a	n/a	18.0%	n/a	2.8%	48,864
1984	6.7%	12.9%	0.3%	n/a	6.5%	4.4%	34.3%	n/a	n/a	11.7%	n/a	n/a	20.5%	n/a	2.8%	51,852
1985	7.0%	15.1%	0.3%	n/a	5.5%	4.5%	32.4%	n/a	n/a	12.3%	n/a	n/a	19.9%	n/a	3.0%	58,068
1986	7.2%	15.8%	0.4%	n/a	6.8%	4.5%	34.2%	n/a	n/a	12.3%	n/a	n/a	16.4%	n/a	2.3%	68,352
1987	8.1%	19.9%	0.2%	n/a	7.7%	7.4%	25.5%	n/a	n/a	13.8%	n/a	n/a	14.6%	n/a	2.8%	72,744
1988	7.6%	20.7%	0.8%	n/a	8.8%	5.6%	30.8%	n/a	n/a	13.3%	n/a	n/a	9.9%	n/a	2.4%	88,596
1989	6.9%	22.9%	0.2%	n/a	10.2%	4.8%	28.9%	n/a	n/a	13.4%	n/a	n/a	10.4%	n/a	2.3%	123,468
1990	5.9%	9.0%	0.2%	6.1%	10.6%	6.1%	26.9%	n/a	6.6%	10.9%	4.3%	n/a	10.6%	n/a	2.8%	135,396
1991	5.0%	10.1%	0.2%	7.0%	11.4%	5.6%	25.8%	n/a	7.6%	9.9%	5.5%	n/a	9.1%	n/a	2.7%	176,664
1992	4.7%	13.1%	0.2%	7.0%	13.4%	6.0%	22.6%	n/a	5.4%	9.6%	5.2%	n/a	9.6%	n/a	3.1%	227,148
1993	5.9%	11.5%	0.2%	6.4%	16.6%	4.7%	23.4%	n/a	5.5%	8.7%	4.7%	n/a	9.6%	n/a	2.7%	279,432
1994	4.8%	9.8%	0.2%	7.0%	19.2%	4.3%	23.9%	n/a	5.3%	8.3%	3.9%	n/a	10.7%	n/a	2.5%	315,216
1995	4.5%	9.8%	0.2%	7.7%	14.3%	4.0%	24.6%	n/a	4.9%	12.5%	3.3%	n/a	7.7%	3.9%	2.4%	365,592
1996	4.4%	9.9%	0.2%	7.2%	13.2%	4.3%	29.4%	n/a	4.2%	11.3%	2.5%	n/a	6.8%	4.4%	2.1%	422,268
1997	4.4%	11.8%	0.2%	7.0%	13.5%	3.5%	28.2%	n/a	4.2%	10.9%	1.9%	n/a	6.6%	5.6%	2.2%	453,852
1998	5.5%	14.2%	0.2%	8.3%	15.7%	3.2%	12.9%	n/a	6.3%	12.2%	2.1%	n/a	8.4%	8.1%	2.9%	356,472
1999	5.4%	14.1%	0.2%	6.9%	15.1%	3.5%	18.6%	n/a	5.8%	11.3%	1.7%	n/a	7.1%	7.7%	2.5%	423,264
2000	5.2%	10.4%	0.1%	7.6%	16.6%	3.3%	23.8%	n/a	7.0%	9.3%	1.4%	n/a	6.4%	6.9%	2.0%	475,836
2001	6.0%	11.7%	0.1%	7.6%	15.4%	3.1%	24.6%	n/a	6.5%	9.3%	1.0%	n/a	5.9%	6.9%	2.0%	517,044
2002	6.7%	9.7%	0.4%	7.3%	15.2%	2.6%	25.8%	n/a	6.5%	10.1%	0.8%	n/a	5.6%	7.3%	1.9%	535,836
2003	7.6%	9.1%	0.2%	7.0%	9.0%	4.3%	24.6%	2.5%	5.0%	15.1%	2.1%	1.8%	11.7%	n/a	n/a	580,656
2004	7.9%	7.9%	0.3%	8.2%	11.0%	3.4%	23.8%	2.2%	4.3%	14.7%	2.0%	2.1%	12.3%	n/a	n/a	615,708
2005	7.4%	8.9%	0.1%	7.3%	10.5%	3.6%	27.4%	2.1%	3.6%	13.4%	1.7%	2.1%	12.0%	n/a	n/a	670,176

자료: 통계청(2006) 가계조사연보

- 문화시설 입장료는 87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98년 이후 증가 추세임
- 교양오락수업료는 89년까지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약 10%에서 머물고 있음
- 스포츠 관람료는 점차 감소하지만 스포츠 수업료는 평균7%로 점차 증가추세이며 스포츠시설사용료는 8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2003년 이후 감소추세임
- 숙박료는 93년이후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임
- 패키지여행비가 가장 많은 지출비율을 차지하는데 감소폭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 어학수업료(평균 2%), 자동차 교습료(평균 6%)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타교양오락비는 증가와 감소가 뚜렷하지 않음
- 교양오락대여료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4%→2%)
- 유선방송시청료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2-4. 고령관광레저 해외사례

□ 일본과 미국(무라타, 2004)

- 일본과 미국은 경제성숙국으로서 그리고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고령산업개발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특히, 일본과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나 시니어 세대는 거의 유사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은 1960년대부터 시니어 대상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일본도 1980년 이후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니어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50대가 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으며 소비도 가장 활발하고, 65세 이상 연령층의 순수 금융자산이 가장 많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50대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다고 볼 때, 고령관광은 50대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정보기술(IT)을 이용하는 관광소비자

- 일본의 경우 50대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하는 고령소비자(smart senior)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정보원의 1순위로 인터넷을 꼽을 수 있음(표 3-27)

<표3-27> 일본인 50대의 해외여행 정보원

(단위: %)

구 분	신문잡지 광고	TV라디오 광고	여행사 직원	경험자 추천	인터넷	관련도서/ 잡지	방송프로 그램	신문기사
50대	6.8	0.7	17.5	14.2	35.0	14.0	2.0	0.6

자료: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2004) 일본 관광소비자 마케팅조사, p121

- 55세 이상 전 미국인의 27%가 적극적인 인터넷 사용자로 조사되고 있고, 다른 그룹

보다도 많은 주당 8.3시간을 인터넷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가. 미국

- 미국의 총 소비지출 중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은 1999년 5.1%, 2000년 4.9%, 2001년 4.9%, 2002년 5.1% 수준임.
- 35-45세가 가장 많고, 이어서 45-55세, 55-64세의 순으로 노인층들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55세 이상 미국노인들의 국내여행비중은 사업 및 레저관광을 포함하여 전체의 31%(1999년)인 1억8천만 명에 이르러 한국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관광레저소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표3-28> 미국소비자의 연령별 엔터테인먼트 소비지출

(단위: 달러, %)

	25이하	25~34	35~44	45~54	55~64	65~74	75이상	총액
2000년	1,091 (9%)	1,876 (16%)	2,464 (21%)	2,231 (19%)	1,955 (17%)	1,403 (12%)	707 (6%)	11,727
2002년	1,212 (9%)	2,027 (16%)	2,685 (21%)	2,565 (20%)	2,297 (18%)	1,371 (11%)	896 (7%)	13,053

자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재구성

나. 일본

□ 일본 연령별 소비지출 현황(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 일본의 경우,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1세대 당 월평균 지출 중 교양 및 오락지출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전체 소비 지출액은 매년 축소하고 있으나 고령계층의 구매력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60대는 오히려 증가)
- 교양 및 오락부분의 지출은 20대보다도 60대의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고 70대의 경우에도 20대보다도 많음
- 따라서 한국도 고령화가 될수록 교양오락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3-29>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소비지출

(단위: 엔)

	년도	세대주의 연령계층						
		평균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70세~
소비지출	2000	317,133	255,637	287,700	355,984	368,144	299,774	241,781
	2001	308,692	251,179	283,268	350,604	361,137	282,707	246,212
	2002	306,129	238,048	280,795	345,738	351,728	284,253	255,371
교양 및 오락	2000	총액	32,126	23,633	33,724	37,710	30,427	33,124
		교양오락 서비스	17,257	10,210	17,369	19,308	16,226	14,245
	2001	총액	31,418	22,223	33,032	37,107	30,836	27,406
		교양오락 서비스	16,838	10,211	16,921	19,168	16,206	16,022
	2002	총액	31,000	21,701	33,195	37,578	29,862	25,656
		교양오락 내구재	3,151	2,711	3,881	4,269	3,387	2,454
		교양오락 용품	6,556	4,887	7,243	8,575	6,441	5,940
		서적기타 인쇄물	4,674	3,533	4,629	4,999	4,742	4,601
		교양오락 서비스	16,619	10,570	17,441	19,736	15,292	14,590

주: 전세대의 연평균 1개월간의 지출

자료: 가계조사, 총무성

□ 일본 교양오락서비스 세부지출 비율

- 한일 교양오락비 통합항목을 기준으로 일본가구당 연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표 3-30>과 같음

<표3-30> 일본 교양오락비 지출비율

(단위: %)

구분	문화 시설 입장료	교양 오락 수업료	스포츠 관람료	스포츠 수업료	스포츠 시설 사용료	숙박료	패키지 여행비	어학 수업료	자동차 교습료	기타 교양 오락비	교양 오락 대여료	인터넷 사용료	TV시 청료	유선 방송 시청료	기타	합계
1983	2.6%	18.8%	0.2%	4.2%	3.1%	6.9%	30.1%	3.5%	4.4%	6.5%	0.5%	n/a	3.8%	2.0%	13.5%	100%
1984	2.5%	17.3%	0.2%	4.5%	3.1%	7.0%	32.6%	3.0%	3.9%	6.0%	0.5%	n/a	4.0%	2.2%	13.1%	100%
1985	2.8%	17.5%	0.2%	4.3%	3.5%	7.4%	32.3%	2.8%	3.2%	5.9%	0.5%	n/a	3.9%	2.1%	13.6%	100%
1986	2.5%	16.4%	0.2%	4.6%	3.4%	7.5%	32.8%	2.6%	3.9%	5.7%	0.5%	n/a	3.8%	2.0%	13.9%	100%
1987	2.8%	15.3%	0.2%	5.0%	4.0%	8.3%	32.6%	2.6%	3.9%	6.6%	0.4%	n/a	3.8%	2.1%	12.3%	100%
1988	2.8%	14.3%	0.2%	5.1%	4.1%	8.3%	33.7%	2.6%	4.5%	6.5%	0.6%	n/a	3.5%	1.9%	12.0%	100%

1989	3.1%	14.6%	0.2%	5.3%	4.2%	8.9%	32.2%	2.6%	3.9%	6.7%	0.7%	n/a	3.5%	1.9%	12.2%	100%
1990	3.0%	13.8%	0.2%	4.9%	4.1%	9.4%	33.2%	2.5%	3.6%	6.5%	0.6%	n/a	3.9%	2.1%	12.1%	100%
1991	2.7%	13.3%	0.2%	4.9%	4.9%	9.6%	33.5%	2.3%	2.6%	6.6%	0.7%	n/a	4.1%	2.2%	12.5%	100%
1992	2.8%	12.5%	0.2%	4.8%	4.9%	9.6%	34.7%	2.3%	3.0%	6.7%	0.6%	n/a	4.1%	2.2%	11.5%	100%
1993	2.9%	13.2%	0.3%	4.9%	5.2%	8.7%	33.2%	2.5%	3.3%	7.2%	0.7%	n/a	4.3%	2.3%	11.4%	100%
1994	3.1%	13.2%	0.3%	4.8%	5.0%	9.9%	32.3%	2.3%	3.0%	7.6%	0.7%	n/a	4.5%	2.4%	10.8%	100%
1995	3.2%	13.2%	0.2%	4.8%	6.0%	9.6%	33.3%	1.9%	2.9%	8.2%	0.7%	n/a	4.7%	2.6%	8.6%	100%
1996	3.4%	12.5%	0.2%	4.8%	6.3%	10.4%	33.3%	1.7%	3.0%	7.9%	0.8%	n/a	4.8%	2.6%	8.3%	100%
1997	3.3%	12.5%	0.3%	4.8%	6.5%	10.4%	34.0%	1.6%	2.5%	7.7%	0.8%	n/a	5.0%	2.7%	8.0%	100%
1998	3.4%	12.0%	0.2%	4.8%	6.1%	9.9%	33.8%	1.9%	2.8%	7.8%	0.8%	n/a	5.5%	3.0%	7.8%	100%
1999	3.5%	11.8%	0.2%	5.0%	6.7%	10.2%	33.6%	1.8%	2.4%	7.5%	0.7%	n/a	5.5%	3.0%	8.0%	100%
2000	3.7%	11.7%	0.2%	4.9%	6.3%	10.3%	33.1%	1.9%	2.0%	7.2%	0.7%	n/a	6.6%	2.7%	8.6%	100%
2001	3.8%	11.8%	0.2%	4.9%	6.5%	9.7%	31.6%	2.1%	2.7%	7.0%	0.7%	n/a	6.9%	3.1%	9.0%	100%
2002	3.8%	11.3%	0.3%	4.8%	5.7%	10.4%	29.2%	2.3%	2.4%	7.0%	0.7%	3.8%	7.3%	3.6%	7.3%	100%
2003	3.9%	11.4%	0.2%	5.1%	5.9%	10.7%	27.0%	2.2%	2.2%	6.9%	0.7%	5.2%	7.2%	4.0%	7.3%	100%
2004	4.0%	10.9%	0.2%	4.9%	6.1%	10.0%	28.3%	2.5%	1.9%	6.3%	0.7%	6.2%	6.7%	4.0%	7.2%	100%
2005	4.5%	10.7%	0.3%	5.0%	6.3%	9.8%	28.5%	2.1%	1.7%	6.2%	0.7%	7.2%	6.2%	4.3%	6.6%	100%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2006) 가계조사

- 문화시설입장료는 점차 증가추세이고 교양오락수업료는 점차 감소추세임
- 스포츠 관람료는 평균0.2~0.3% 로 스포츠 수업료는 5%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스포츠시설 사용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6%를 유지하고 있음
- 숙박료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평균 10%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패키지 여행비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30%대에서 20% 대로 감소하였음
- 기타 교양오락비는 95년을 기점으로 증가에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음
- 유선방송 시청료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임

3. 고령관광레저의 트렌드

3-1. 트렌드예측의 전제

□ 한일 1인당 교양오락서비스 지출비용 비교

- 한일 양국의 ‘가계조사연보’에 의거 최근 한국의 1인당 연간 교양오락서비스 지출비용은 1999년(423,264원)–2005년(670,176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1983년(442,111원)–1986년(835,724원)에 근접함
- 따라서 이 기간(연간 지출비용 40만–70만원대) 동안 양국의 교양오락서비스 세부항목별 변화추이를 비교하여 유사한 추세변화를 보이는 항목들은 향후에도 일본의 경우를 답습할 것으로 가정함
- 한일 양국의 ‘가계조사연보’에 따른 교양오락서비스 세부 지출항목은 매우 유사함

<표3-31> 한일 1인당 교양오락서비스 지출 추계

(단위: 원)

연도	일본	한국	연도	일본	한국
1982	n/a	38,616	1994	1,779,882	315,216
1983	442,111	48,864	1995	1,768,744	365,592
1984	495,221	51,852	1996	1,603,630	422,268
1985	567,646	58,068	1997	1,746,156	453,852
1986	835,724	68,352	1998	2,368,325	356,472
1987	884,291	72,744	1999	2,359,640	423,264
1988	982,190	88,596	2000	2,246,189	475,836
1989	862,831	123,468	2001	2,221,134	517,044
1990	972,788	135,396	2002	2,049,928	535,836
1991	1,156,221	176,664	2003	2,065,252	580,656
1992	1,394,362	227,148	2004	2,259,815	615,708
1993	1,651,177	279,432	2005	1,944,749	670,176

자료: 통계청(2006) 가계조사연보

일본 총무성 통계국(2006) 가계조사

□ 최근 한일 교양오락서비스 연간 지출비용 비교

- <표3-32>는 한일 양국의 1인당 교양오락서비스 연간지출액(40만~70만원대)이 유사한 시기에 세부항목별로 변화추이 보여주고 있음

<표3-32>한일 교양오락서비스 1인당 연간 지출액(40만~70만원대) 비교

구분	연도	문화시설입장료	교양오락수업료	스포츠관람료	스포츠수업료	스포츠시설사용료	숙박료	패키지여행비	어학수업료	자동차교습료	기타교양오락비	교양오락대여료	인터넷사용료	T V 시청료	유선방송시청료	기타	총액(원)
한국	1999	5.4%	14.1%	0.2%	6.9%	15.1%	3.5%	18.6%	n/a	5.8%	11.3%	1.7%	n/a	7.1%	7.7%	2.5%	423,264
	2000	5.2%	10.4%	0.1%	7.6%	16.6%	3.3%	23.8%	n/a	7.0%	9.3%	1.4%	n/a	6.4%	6.9%	2.0%	475,836
	2001	6.0%	11.7%	0.1%	7.6%	15.4%	3.1%	24.6%	n/a	6.5%	9.3%	1.0%	n/a	5.9%	6.9%	2.0%	517,044
	2002	6.7%	9.7%	0.4%	7.3%	15.2%	2.6%	25.8%	n/a	6.5%	10.1%	0.8%	n/a	5.6%	7.3%	1.9%	535,836
	2003	7.6%	9.1%	0.2%	7.0%	9.0%	4.3%	24.6%	2.5%	5.0%	15.1%	2.1%	1.8%	11.7%	n/a	n/a	580,656
	2004	7.9%	7.9%	0.3%	8.2%	11.0%	3.4%	23.8%	2.2%	4.3%	14.7%	2.0%	2.1%	12.3%	n/a	n/a	615,708
	2005	7.4%	8.9%	0.1%	7.3%	10.5%	3.6%	27.4%	2.1%	3.6%	13.4%	1.7%	2.1%	12.0%	n/a	n/a	670,176
일본	1983	2.6%	18.8%	0.2%	4.2%	3.1%	6.9%	30.1%	3.5%	4.4%	6.5%	0.5%	n/a	3.8%	2.0%	13.5%	442,111
	1984	2.5%	17.3%	0.2%	4.5%	3.1%	7.0%	32.6%	3.0%	3.9%	6.0%	0.5%	n/a	4.0%	2.2%	13.1%	495,221
	1985	2.8%	17.5%	0.2%	4.3%	3.5%	7.4%	32.3%	2.8%	3.2%	5.9%	0.5%	n/a	3.9%	2.1%	13.6%	567,646
	1986	2.5%	16.4%	0.2%	4.6%	3.4%	7.5%	32.8%	2.6%	3.9%	5.7%	0.5%	n/a	3.8%	2.0%	13.9%	835,724

자료: 통계청(2006) 가계조사연보

일본 총무성 통계국(2006) 가계조사

- 상기 <표3-32>에 의거 한일간 교양오락서비스부문 세부지출항목별 변화추이를 요약비교하면 아래 <표3-33>와 같음
- 한일 교양오락서비스 세부항목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교양오락대여료’ 지출비율이 증감을 반복하여 평균 0.5%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다름
- ‘교양오락대여료’를 제외한 다음 모든 지출항목들에 있어서 한일간에 증가추세, 감소추세 또는 일정한 평균비율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은 교양오락서비스 지출부문에 있어서 향후 일본의 변화추이를 비슷하게 따라 갈 것으로 예상됨

<표3-33> 한일 교양오락서비스 세부항목별 변화추이

구분	문화 시설 입장료	교양 오락 수입료	스포츠 관람료	스포츠 수입료	스포츠 시설 사용료	숙박료	패키지 여행비	어학 수업료	자동차 교습료	기타 교양 오락비	교양 오락 대여료	인터넷 사용료	T V시 청료	유선 방송 시청료	기타
한국	증가 추세	감소 추세	평균 0.2%	평균 7%	감소 추세	평균 3%	평균 25%	감소 추세	감소 추세	감소 추세*	증감 반복*	증가 추세	증가 추세*	평균 7%	평균 2%
일본	증가 추세*	감소 추세	평균 0.2%	평균 4%	평균 3%	평균 7%	평균 32%	감소 추세	감소 추세	감소 추세	평균 0.5%	증가 추세	증가 추세*	평균 2%	평균 13%

자료: 통계청(2006) 가계조사연보

일본 총무성 통계국(2006) 가계조사

주) *는 몇 년간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과거 20여년간의 추이표를 참고로 예측한 추세임

□ 한일 고령비율을 한국 관광레저 전망의 기초로 삼음

- 앞에서 한일 교양오락서비스 항목간 변화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일본의 향후 일본의 변화추이를 답습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한국은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비율 증가에 따른 교양오락서비스 세부활동별 변화추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 교양오락서비스 활동을 예측하고자 함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2005년 고령비율(9.1%)는 1980년 일본 고령비율과 동일하고 2025년에 한국의 고령비율(19.9%)는 2005년 일본과 동일함
- 따라서 일본의 1980년-2005년까지의 교양레저서비스 항목별 변화추이는 한국의 2005년-2025년 변화추이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함

<표3-34> 한일 고령비율추계

연도	한국	일본	연도	한국	일본
1970	3.1%	7.1%	1998	6.6%	16.2%
1980	3.8%	9.1%	1999	6.9%	16.8%
1981	3.9%	9.3%	2000	7.2%	17.4%
1982	4.0%	9.6%	2001	7.6%	17.9%
1983	4.0%	9.8%	2002	7.9%	18.4%
1984	4.1%	10.1%	2003	8.3%	18.9%
1985	4.3%	10.3%	2004	8.7%	19.4%
1986	4.4%	10.7%	2005	9.1%	19.9%
1987	4.5%	11.0%	2010	11.0%	22.5%

1988	4.7%	11.4%	2015	12.9%	26.0%
1989	4.8%	11.7%	2018	14.3%	27.1%
1990	5.1%	12.1%	2020	15.6%	27.8%
1991	5.2%	12.6%	2025	19.9%	28.7%
1992	5.4%	13.1%	2026	20.8%	28.9%
1993	5.5%	13.6%	2030	24.3%	29.6%
1994	5.7%	14.1%	2035	28.4%	30.9%
1995	5.9%	14.6%	2040	32.5%	33.2%
1996	6.1%	15.1%	2045	35.5%	34.7%
1997	6.4%	15.7%	2050	38.2%	35.7%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참조 저자 재작성

일본 내각부 공생사회정책통관관

3-2. 고령관광레저 트렌드 전망

□ 일본 교양오락서비스 비용지출 추이(1983-2005)

- 문화시설입장료는 1983년 2.6%, 1995년 4.5%로 지속적으로 증가
- 교양오락수업료는 1983년(18.8%), 1995년(10.7%)로 계속 감소
- 스포츠관람료는 1983-1992년 까지 0.2%를 유지하다고 이후 0.3%로 소폭 증가
- 스포츠수업료는 1983년 4.2%에서 2005년 5.0%로 증가
- 스포츠시설사용료와 숙박료 항목은 1983년(각각 3.1%, 6.9%)-1997년(각각 6.5%, 10.4%)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각각 6.3%, 9.8%로 소폭 감소
- 패키지여행비는 1997년까지 30% 초반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 현재 28.5%를 차지
- 어학수업료는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2.1%를 기록
- 자동차교습료는 1983년 4.4%, 2005년 1.7%로 지속적으로 감소
- 기타 교양오락비는 1995년(8.2%)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05년 6.2%까지 하락
- 교양오락대여료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 현재 0.7% 기록
- 인터넷사용료는 2002년 측정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현재 7.2%임

- TV시청료와 유선방송시청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현재 각각 6.2%, 4.3%를 기록
- 기타 지출항목분야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표3-35> 일본 교양오락서비스 지출비율 (1983-2005)

한국		일본		문화 시설 입장 료	교양 오락 수업 료	스포 츠관 람료	스포 츠수 업료	스포 츠 시설 사용 료	숙박 료	패키 지여 행비	어학 수업 료	자동 차교 습료	기타 교양 오락 비	교양 오락 대여 료	인터 넷사 용료	TV시 청료	유선 방송 시청 료	기타
연도	고령 비율	연도	고령 비율															
2005	9.1%	1983	9.8%	2.6%	18.8%	0.2%	4.2%	3.1%	6.9%	30.1%	3.5%	4.4%	6.5%	0.5%	n/a	3.8%	2.0%	13.5%
2010	11.0%	1987	11.0%	2.8%	15.3%	0.2%	5.0%	4.0%	8.3%	32.6%	2.6%	3.9%	6.6%	0.4%	n/a	3.8%	2.1%	12.3%
2015	12.9%	1992	13.1%	2.8%	12.5%	0.2%	4.8%	4.9%	9.6%	34.7%	2.3%	3.0%	6.7%	0.6%	n/a	4.1%	2.2%	11.5%
2018	14.3%	1995	14.6%	3.2%	13.2%	0.2%	4.8%	6.0%	9.6%	33.3%	1.9%	2.9%	8.2%	0.7%	n/a	4.7%	2.6%	8.6%
2020	15.6%	1997	15.7%	3.3%	12.5%	0.3%	4.8%	6.5%	10.4%	34.0%	1.6%	2.5%	7.7%	0.8%	n/a	5.0%	2.7%	8.0%
2025	19.9%	2005	19.9%	4.5%	10.7%	0.3%	5.0%	6.3%	9.8%	28.5%	2.1%	1.7%	6.2%	0.7%	7.2%	6.2%	4.3%	6.6%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2006) 가계조사

주) 2005년 한국과 1980년 일본의 고령비율은 9.1%로 동일하나 1980년도 자료의 부재로 일본의 1983년 자료를 사용

□ 한국 교양오락서비스 지출의 항목별 트렌드 전망

- 앞에서 일본의 1983년(고령비율 9.8%)-2005년(고령비율 19.9%)까지의 교양오락서비스 지출에 대한 항목별 추이를 분석하였음
-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1995년(고령비율 9.1%)-2025년(고령비율 19.9%)까지의 교양오락서비스 비용지출의 변화 트렌드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표)
- 여행과 관련된 항목으로 패키지여행비 지출추이는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나 문화시설입장료, 스포츠관람료, 숙박료는 증가추세로 관광지출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스포츠수업료의 소폭상승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료 관련 지출항목은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관람료, 스포츠수업료 및 스포츠시설사용료는 모두 증가추세가 전망되어 고령화가 가속될 수록 스포츠산업은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 교양오락 관련 비용은 일정기간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및 방

송수신료 비용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3-36> 한국 교양오락서비스 지출비율 전망(2005-2025)

항목	문화 시설 입장료	교양 오락 수업료	스포츠 관람료	스포츠 수업료	스포츠 시설 사용료	숙박료	패키지 여행비	어학수 업료	자동차 교습료	기타 교양 오락비	교양 오락 대여료	인터넷 사용료	TV시청 료	유선 방송 시청료	기타
트렌드 전망	증가 예상	감소 예상	소폭 증가	소폭 증가	증가 예상	증가 예상	현상 유지	감소 예상	감소 예상	증가후 감소	소폭 증가후 유지	상승 예상	상승 예상	상승 예상	감소 예상

자료: 통계청(2006) 가계조사연보

제4장 고령관광수요

1. 수요예측의 기본방향

2. 고령관광총량 예측

3. 관광레저도시의 고령관광수요

1. 수요예측의 기본방향

1-1. 예측방법

-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함(한상검, 2004)
- 따라서 고령관광은 노인의 신체적 활동성, 국민여행실태조사, 평균수명 등 기존 연구와 계량적 통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국내관광에 참여하는 50세-74세의 관광객으로 정의함
- 고령관광 수요예측은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하고, 50세-74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숙박행태별, 활동행태별, 목적지별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2015년 고령관광총량, 당일·숙박관광총량, 관광행태별 관광총량을 추정함
- 또한 2015년 고령관광총량의 정책목표수요를 인구증가율 수준으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2015년 무주, 태안, 영암, 해남 지역의 고령관광총량을 전망함
- 국민국내관광총량 수요예측 방법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민국내관광총량 시계열자료를 기초자료로 시계열예측기법을 적용하고, 통계프로그램(SAS 8.x)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적모형 설정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평균절대비율오차(MAPE)와 모형설명력(R-Square)을 적용하였음
- 고령관광총량 수요예측 방법은 2015년 지역별, 당일·숙박의 관광행태별, 목적지별 총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국민여행실태조사, 방문지보고통계 등을 기초자료로 지역배분관광총량기법을 적용함

<그림4-1> 수요예측 수행도

1-2. 기본전제

가. 고령관광인구 현황

- 고령자고용측진법 및 통계청 자료(2005, 2006 생명표작성결과)에 의하면,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부터 해당하고, 우리나라 향후 기대 평균수명은 남자 75세, 여자 82세

- 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국내관광총량 연령별 지표는 “50세 이상”의 관광행태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왔음
 -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법의 계량적 적용을 위하여 통계청의 연령별 범위에서 50세 이상으로 가정하고 남여 평균 기대 평균수명인 78.5세를 기준으로 하되 여행 또는 관광활동의 특성상 신체적 이동이 가능한 고령범위를 74세 이하로 가정함
 - 고령관광인구는 1970년부터 2005까지 매년 3.25% 증가해 왔고, 최근 10년(1996년부터 2015년)에는 매년 3.22%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4-1〉 고령관광 잠재인구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추계인구	50세-74세	비율	연도	전체추계인구	50세-74세	비율
1970	32,240,827	3,262,904	10.12%	1988	42,031,247	5,819,219	13.84%
1971	32,882,704	3,389,211	10.31%	1989	42,449,038	6,060,078	14.28%
1972	33,505,406	3,407,337	10.17%	1990	42,869,283	6,267,652	14.62%
1973	34,103,149	3,488,885	10.23%	1991	43,295,704	6,484,644	14.98%
1974	34,692,266	3,580,178	10.32%	1992	43,747,962	6,716,218	15.35%
1975	35,280,725	3,704,965	10.50%	1993	44,194,628	6,935,263	15.69%
1976	35,848,523	3,823,830	10.67%	1994	44,641,540	7,133,488	15.98%
1977	36,411,795	3,945,970	10.84%	1995	45,092,991	7,322,167	16.24%
1978	36,969,185	4,076,491	11.03%	1996	45,524,681	7,512,546	16.50%
1979	37,534,236	4,212,218	11.22%	1997	45,953,580	7,752,126	16.87%
1980	38,123,775	4,341,589	11.39%	1998	46,286,503	7,999,820	17.28%
1981	38,723,248	4,463,092	11.53%	1999	46,616,677	8,245,684	17.69%
1982	39,326,352	4,614,808	11.73%	2000	47,008,111	8,492,732	18.07%
1983	39,910,403	4,784,727	11.99%	2001	47,357,362	8,727,652	18.43%
1984	40,405,956	4,973,186	12.31%	2002	47,622,179	9,013,813	18.93%
1985	40,805,744	5,174,204	12.68%	2003	47,859,311	9,301,166	19.43%
1986	41,213,674	5,370,777	13.03%	2004	48,039,415	9,617,286	20.02%
1987	41,621,690	5,588,569	13.43%	2005	48,138,077	9,992,671	20.76%

자료: 통계청(2006)

나. 고령관광총량 현황

- 고령관광총량 현황은 '연간고령관광총량 = 연간숙박총량 + 연간당일총량'으로 계산되며, 1일 방문객수를 계산하여 1년간 총방문객수를 산출함
- 1999년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1999)에서는 응답자수 2,000명이고, 전국민 관광총량 대비 고령관광총량은 11.6%, 숙박관광총량 6.9%, 당일관광총량 16.4%로 나타남
- 2001년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00)에서는 응답자수 2,000명이고, 전국민 관광총량 대비 고령관광총량은 14.1%, 숙박관광총량 7.6%, 당일관광총량 21.4%로 나타남
- 2004년·2005년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에서는 각각 응답자수 12,600명이고, 전국민관광총량 대비 각각 고령관광총량은 30.0%, 27.6%, 숙박관광총량 35.2%, 30.3%, 당일관광총량 20.1%, 23.2%로 나타남
- 각년도별 고령관광총량이 국민관광총량에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4년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각년도의 조사응답자수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세를 전망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고령관광총량의 추세는 국민관광총량에 반영하고, 본 연구에서는 조사신뢰성을 고려하여 최근 시장점유율(2004년, 2005년)의 평균치를 적용함
- 따라서 국민국내관광총량 전망치에 대하여 고령관광총량은 2004년과 2005년 평균 28.8%를 적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고령숙박관광총량은 2004년과 2005년 평균 32.8%를 적용하였으며, 당일관광총량은 평균 21.7%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4-2> 고령관광 총량현황

(단위: 천 명)

연도	응답자수	국민관광총량			고령관광총량(50-74세)					
		총량	숙박총량	당일총량	총량	숙박총량	당일총량	총량비율	숙박총량비율	당일총량비율
1999	2,000	272,607	138,102	134,505	31,598	9,477	22,121	11.6%	6.9%	16.4%
2001	2,000	327,929	173,802	154,126	46,290	13,246	33,044	14.1%	7.6%	21.4%
2004	12,600	358,943	234,127	124,816	107,515	82,396	25,120	30.0%	35.2%	20.1%
2005	12,600	388,446	240,187	148,259	107,384	72,856	34,528	27.6%	30.3%	23.3%

주: 1999년, 2001년, 2004년, 2005년 자료를 토대로 2015년까지의 고령관광총량 예측

(총량=인구 수*여행경험률* 참여 횟수*일수로 계산)

자료: 한국관광공사(1999,2001,2004,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다. 행태별 고령관광총량 현황

- 고령관광행태는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04, 2005)의 행태별 관광활동을 기반으로 고령이 참여하는 형태를 활동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함.
- 고령관광행태는 크게 휴식·휴양형, 관람형·소극참여형, 체험형·적극참여형, 쇼핑 등 기타형의 4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여 가정하고, 각 활동별 참여비율을 분석함

〈표4-3〉 관광활동의 유형별 분류

휴식·휴양형	낚시, 온천, 가족/친지방문, 친구방문, 휴식/휴양 등
관람형· 소극참여형	자연명승/풍경감상, 문화유적지방문, 스포츠관람, 회의참가/사찰 등
체험형· 적극참여형	레저시설/놀이공원방문, 유흥/오락, 축제/이벤트참가, 등산/캠핑/하이킹, 수영/해변활동, 종교/순례활동, 각종레포츠활동, 교육/체험프로그램참가 등
쇼핑 등 기타	쇼핑, 기타

- 숙박관광에 있어서는 휴식·휴양형이 평균 48.7%(04, 05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관람형·소극참여형이 평균 29.7%를 차지함
- 당일관광에 있어서는 관람형·소극참여형이 평균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휴식·휴양형이 31%를 차지함

〈표4-4〉 행태별 고령관광총량 현황

(단위: %)

구분	연도/평균	휴식·휴양형	관람형· 소극참여형	체험형· 적극참여형	쇼핑 등 기타
숙박관광	2004	47.70%	29.60%	16.80%	5.90%
	2005	49.60%	29.80%	15.10%	5.50%
	평균	48.70%	29.70%	15.90%	5.70%
당일관광	2004	27.60%	36.10%	23.40%	12.90%
	2005	34.30%	32.10%	22.80%	10.80%
	평균	31.00%	34.10%	23.10%	11.80%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2004-2005)

라. 광역별 방문 현황

- 광역별 방문 현황에서는 관광레저도시 방문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관광레저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국한하여 목적지별 방문현황을 조사
-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고령 관광객 목적지 선호율은 숙박관광에 있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남과 충남이 전북에 비하여 약 3~5%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전남과 전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충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당일 관광에 있어서 고령 관광객 목적지 선호율은 2005년 기준 전남(9.2%)이 전북(4.5%)과 충남(6.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북을 제외한 전남과 충남에 서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4-5> 목적지별 방문현황

(단위: %)

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숙박관광	당일관광	숙박관광	당일관광	숙박관광	당일관광
2001	8.2	10.0	3.6	5.9	8.2	9.8
2002	n/a	n/a	n/a	n/a	n/a	n/a
2003	n/a	n/a	n/a	n/a	n/a	n/a
2004	8.4	10.8	4.1	5.1	7.4	11.0
2005	9.2	9.8	4.5	6.0	6.6	7.8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2001-2005)

마. 관광레저도시 방문 현황

- 레저관광도시(전라남도 영암,해남, 전라북도 무주, 충청남도 태안)를 방문한 고령 관광객 수는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전라남도를 방문한 총 고령관광객 중 영암 방문 비율은 1999년 기준 6%였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9%로 하락하였음
- 전라남도를 방문한 총 고령관광객 중 해남 방문 비율은 1999년 기준 8%였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6.9%로 하락하였음
- 전라북도를 방문한 총 고령 관광객 중 무주 방문 비율은 1999년 10.2%에서 소폭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02년 10.8%로 증가함

- 충청남도를 방문한 총 고령 관광객 중 태안 방문 비율은 1999년 17.6%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23.7%를 차지
- 연도별 비율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영암은 4.7%, 해남은 7%, 무주는 10.2 %, 태안은 20.7%의 비율로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4-6〉 지역관광객 방문현황

(단위: 천 명)

년도	전라남도	영암	비율	해남	비율	전라북도	무주	비율	충청남도	태안	비율
1999	30,349	1,834	6.0%	2,438	8.0%	20,977	2,136	10.2%	50,011	8,799	17.6%
2000	38,245	2,256	5.9%	2,768	7.2%	24,747	2,426	9.8%	56,796	9,792	17.2%
2001	46,689	2,159	4.6%	3,019	6.5%	27,839	2,774	10.0%	55,284	11,150	20.2%
2002	50,754	2,418	4.8%	3,978	7.8%	32,515	3,498	10.8%	63,221	14,682	23.2%
2003	65,189	2,680	4.1%	3,978	6.1%	35,987	n/a	n/a	65,861	14,621	22.2%
2004	70,217	2,717	3.9%	4,835	6.9%	41,454	n/a	n/a	67,520	15,997	23.7%
2005	70,217	2,717	3.9%	n/a	n/a	n/a	n/a	n/a	n/a	n/a	n/a

자료: 각 시도별 통계연보(2005)

2. 고령관광총량 예측

2-1. 국민 국내관광총량 전망

- 1984년부터 2005년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관광총량 시계열예측에 있어 MAPE(10이하이면 모델이 적합)와 R^2 (0.7, 즉 70% 이상이면 모델이 적합) 값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 국민국내관광총량 예측모형은 LRWD 모델이 최적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숙박관광총량 예측모형은 DTES 모델이 최적모형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당일관광총량은 MAPE가 10이상, R^2 값이 약 0.59로 모델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 당일관광총량은 총 관광총량에서 숙박관광총량을 뺀 값으로 적용하였음

<표4-7> 예측모델 및 모델 설명력

SERIES	MODEL	MAPE	R^2 (R-square)
숙박관광총량	Damped Trend Exponential Smoothing	4.602592246	0.953137966
당일관광총량	Damped Trend Exponential Smoothing	10.41339438	0.589549492
국민국내관광총량	Log Random Walk with Drift	7.203123957	0.812936337

- 국민국내관광총량은 2006년 4억 명, 2010년 4억8천만 명, 목표연도인 2015년에는 약 6억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연평균 국민관광총량은 4.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부적으로 숙박관광총량은 3억7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당일관광총량은 약 2억3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연평균 숙박관광총량은 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일관광총량은 4.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4-8> 2015년 국민국내관광총량 예측결과

(단위: 천 명)

연도	국민관광총량		
	총 관광총량	숙박관광총량	당일관광총량
2006	405,780	253,107	152,672
2007	423,887	266,007	157,880
2008	442,802	278,893	163,910
2009	462,562	291,766	170,796
2010	483,203	304,626	178,577
2011	504,766	317,474	187,292
2012	527,290	330,309	196,982
2013	550,820	343,131	207,689
2014	575,340	355,940	219,460
2015	601,076	368,736	232,340

2-2. 고령관광총량 전망

- 고령관광총량은 국민국내관광총량 예측결과에서 나타난 예측치를 기반으로 최근 50세 이상의 관광활동 평균점유율을 적용하여 예측함
 - 평균점유율은 2004년, 2005년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50세 이상 관광활동자의 평균관광활동 참여 비율임
 - 2004년과 2005년 평균 고령관광총량 28.8%, 고령숙박관광총량 평균 32.8%, 당일관광총량 평균 21.7%를 적용함
-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총 관광총량은 2006년 약 4억 5백만 명으로 전망되며, 이 중에서 고령 총 관광총량은 2006년 기준 약 1억1천6백만 명으로 전체 28.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국민의 총 관광총량은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6억 명에 도달할 전망되며, 고령 총 관광총량은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약 6백만 명 정도 증가하여 약 1억7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 숙박관광총량은 전체 숙박관광총량 중에서 약 32%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약 1억2천만 명에 도달할 전망임
- 고령 당일관광총량은 전체 당일관광총량 중에서 약 21.7%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5천만 명에 도달할 전망임

<표4-9> 2015년 고령관광총량 예측결과

(단위: 천 명)

연도	고령관광총량(50-74세)		
	총 관광총량	숙박관광총량	당일관광총량
2006	116,066	82,925	33,141
2007	121,423	87,151	34,271
2008	126,953	91,373	35,580
2009	132,666	95,591	37,075
2010	138,568	99,804	38,764
2011	144,669	104,013	40,656
2012	150,978	108,218	42,760
2013	157,503	112,419	45,084
2014	164,254	116,616	47,639
2015	171,243	120,808	50,435

2-3. 행태별 고령관광총량 전망

- 4가지 여가활동 행태별 고령관광총량은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행태별 고령관광총량은 휴양·휴식형이 4가지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관람형·소극참여형>체험형·적극참여형>쇼핑 등 기타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4-10> 행태별 고령관광총량 예측

(단위: 천 명)

연도	휴양·휴식형	관람형· 소극참여형	체험형· 적극참여형	쇼핑 등 기타형
2006	50,636	35,897	20,874	8,658
2007	53,044	37,536	21,809	9,034
2008	55,504	39,235	22,784	9,430
2009	58,021	40,995	23,802	9,848
2010	60,595	42,821	24,864	10,288
2011	63,230	44,715	25,972	10,753
2012	65,929	46,679	27,128	11,242
2013	68,694	48,718	28,335	11,756
2014	71,529	50,833	29,594	12,298
2015	74,436	53,030	30,908	12,868

3. 관광레저도시의 고령관광수요

3-1. 광역별 고령관광총량

-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관광총량에 의하면 전남지역의 관광총량은 2006년 약 1천만 명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1천 5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북지역의 관광총량은 2006년 약 5백만 명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7백 7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충남지역의 관광총량은 2006년 약 9백 30만 명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1천 3백 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4-11〉 광역별 고령관광총량 예측

(단위: 천 명)

연도	전남			전북			충남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2006	10,527	7,151	3,377	5,239	3,363	1,876	9,300	6,138	3,162
2007	11,007	7,515	3,492	5,474	3,534	1,940	9,721	6,451	3,270
2008	11,504	7,879	3,625	5,720	3,705	2,014	10,158	6,763	3,395
2009	12,020	8,243	3,777	5,975	3,876	2,099	10,613	7,075	3,538
2010	12,556	8,606	3,949	6,242	4,047	2,195	11,086	7,387	3,699
2011	13,111	8,969	4,142	6,520	4,218	2,302	11,578	7,699	3,879
2012	13,688	9,332	4,357	6,809	4,388	2,421	12,090	8,010	4,080
2013	14,287	9,694	4,593	7,111	4,559	2,552	12,623	8,321	4,302
2014	14,909	10,056	4,854	7,426	4,729	2,697	13,177	8,631	4,546
2015	15,556	10,417	5,139	7,754	4,899	2,855	13,754	8,942	4,813

3-2. 관광레저도시의 고령관광총량

-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지역별 관광총량에 의하면, 영암지역의 관광총량은 2006년 약 50만 명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7백 3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해남지역의 관광총량은 2006년 약 75만 명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110만 명으로 전망됨
- 무주지역의 관광총량은 2006년 약 53만 명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79만 명으로 전망됨
- 태안지역의 관광총량은 2006년 약 1백 90만 명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2백 84만 명에 도달할 전망됨

<표4-12> 지역별 고령관광총량 예측

(단위: 천 명)

연도	영암			해남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2006	499	339	160	747	507	240
2007	522	356	166	781	533	248
2008	545	373	172	816	559	257
2009	570	391	179	853	585	268
2010	595	408	187	891	610	280
2011	621	425	196	930	636	294
2012	649	442	206	971	662	309
2013	677	459	218	1,014	688	326
2014	707	477	230	1,058	713	344
2015	737	494	244	1,103	739	365
연도	무주			태안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2006	533	342	191	1,924	1,270	654
2007	557	360	197	2,011	1,334	677
2008	582	377	205	2,101	1,399	702
2009	608	394	214	2,195	1,464	732
2010	635	412	223	2,293	1,528	765
2011	663	429	234	2,395	1,593	803
2012	693	447	246	2,501	1,657	844
2013	724	464	260	2,611	1,721	890
2014	756	481	274	2,726	1,786	940
2015	789	499	291	2,845	1,850	996

3-3. 관광레저도시의 행태별 고령관광총량

- 4가지 여가활동 행태별 고령관광총량은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x행태별 고령관광총량은 휴양·휴식형이 4가지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관람형·소극참여형>체험형·적극참여형>쇼핑 등 기타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4-13〉 행태별 고령관광총량 예측

(단위: 천 명)

연도	휴양·휴식형	관람형· 소극참여형	체험형· 적극참여형	쇼핑 등 기타형
2006	1,615	1,145	666	276
2007	1,691	1,197	695	288
2008	1,768	1,250	726	300
2009	1,848	1,306	758	314
2010	1,930	1,364	792	328
2011	2,015	1,425	828	343
2012	2,102	1,488	865	358
2013	2,192	1,554	904	375
2014	2,284	1,624	945	393
2015	2,380	1,696	988	411

3-4. 관광레저도시 고령관광총량 정책목표

- 1996년 이후 매년 고령관광인구(50-74세) 증가율 3.22%를 적용시켜 관광레저도시 지역별 고령관광총량을 예측한 결과, 영암,해남, 무주, 태안 지역 모두 국내관광총량, 숙박 및 당일관광총량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관광레저도시의 고령 국내관광총량, 숙박 및 당일관광총량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태안>해남>무주>영암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영암의 고령 국내관광총량은 2006년 기준 약 5억1천5백만 명에서 2015년 약 7억6천1백만 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숙박 및 당일관광총량은 매년 각각 평균 2.5%, 2.3% 비율로 증가하여 2015년 약 5억1천만 명, 약 2억5천1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해남의 고령 국내관광총량은 2006년 기준 약 7억7천1백만 명에서 2015년 약 11억3천9백만 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숙박 및 당일관광총량은 매년 각각 평균 2.5%, 2.3% 비율로 증가하여 2015년 약 7억6천3백만 명, 약 3억7천6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무주의 고령 국내관광총량은 2006년 기준 약 5억5천만 명에서 2015년 약 8억1천5백만 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숙박 및 당일관광총량은 매년 각각 평균 2.5%, 2.3% 비율로 증가하여 2015년 약 5억1천5백만 명, 약 3억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태안의 고령 국내관광총량은 2006년 기준 약 19억2천3백만 명에서 2015년 약 29억3천7백만 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숙박 및 당일관광총량은 매년 각각 평균 2.5%, 2.3% 비율로 증가하여 2015년 약 19억9백만 명, 약 10억2백8십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4-14> 지역별 고령관광총량 정책목표

(단위: 천 명)

연도	영암			해남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2006	515	350	165	771	524	247
2007	539	368	171	806	550	256
2008	563	385	177	842	577	265
2009	588	403	185	880	604	277
2010	614	421	193	919	630	289
2011	641	439	203	960	657	303
2012	670	457	213	1,002	683	319
2013	699	474	225	1,046	710	336
2014	729	492	237	1,092	736	355
2015	761	510	251	1,139	763	376
연도	무주			태안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관광총량	숙박 관광총량	당일 관광총량
2006	550	353	197	1,986	1,311	675
2007	575	371	204	2,076	1,377	698
2008	601	389	212	2,169	1,444	725
2009	628	407	220	2,266	1,511	755
2010	656	425	231	2,367	1,577	790
2011	685	443	242	2,472	1,644	828
2012	715	461	254	2,582	1,710	871
2013	747	479	268	2,695	1,777	919
2014	780	497	283	2,814	1,843	971
2015	815	515	300	2,937	1,909	1,028

제5장 고령관광레저산업 개발방향

1. 핵심 고령관광레저산업

2. 관광레저도시의 고령정주수요

3. 관광레저도시형 실버타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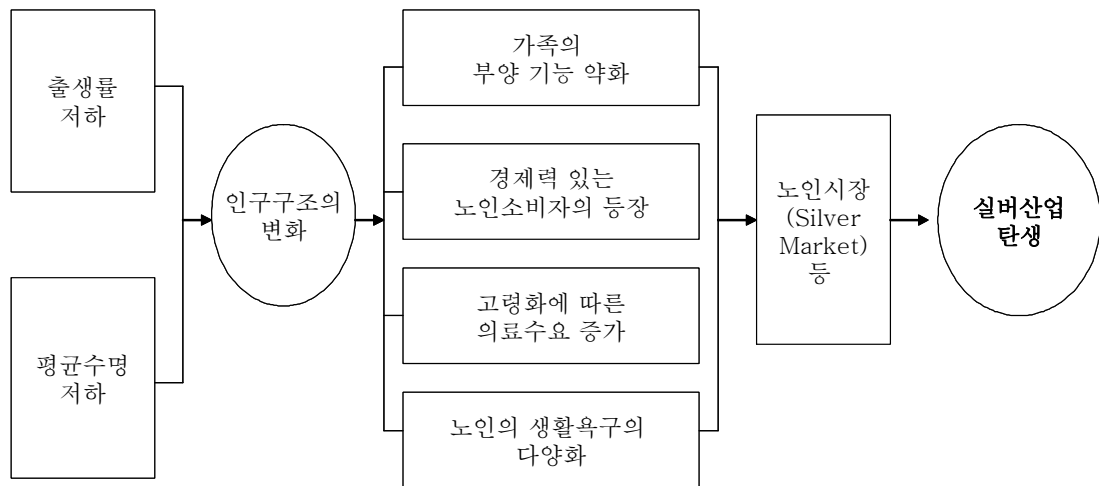
1. 핵심 고령관광레저산업

- 고령친화산업은 노인관련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령관광레저산업은 고령자가 관광지에서 장기체류를 하며 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긴다는 점에서 요양산업, 여가산업, 그리고 주택산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고급형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관광, 요양, 여가, 주택산업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핵심 고령관광레저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고령관광레저산업의 기초시설로서의 실버타운의 잠재수요 및 관광레저도시의 실버타운 정주수요를 예측하고 그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1. 고령관광레저산업

가. 고령친화산업의 등장

- 고령친화산업은 출생률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로부터 인구구조상 고령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성장하는 노인시장의 대처하기 위해 출현된 산업 (그림5-1)
- 급증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 경제적 능력을 소유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주거, 의료, 금융 및 일반생활 및 문화 등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촉진이 전망됨



자료: 황의록, 이은경, 1992, 57에서 재구성한 것

<그림5-1> 고령친화산업의 등장배경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 노인관련 산업은 지금까지 일본식 영어인 실버산업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2005)’에서 고령친화산업으로 명명하기 시작(박수천, 2005)
-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제경쟁력 및 시장매력도 등 수익성과 복지국가차원의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 실버산업진흥법의 “고령친화적 신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령친화’라 함은 실제로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하에 노인의 선호(편리성과 안전성)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대한상공회의소, 2006)

□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에 관한 연구를 비교하면, 주거주택,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용품용구, 여가교육, 금융보험분야는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생활, 건강, 의료, 안전, 삶의 보람,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를 추가하였고,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는 정보, 한방, 농업분야를 특화함(박수천, 2005)

(표5-1)

<표5-1>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분야	보건사회 연구원 (1996)	삼성경제 연구소 (2003)	보건복지부 실버위원회 (2004)	한림대 (2005)	고령화미래 사회위원회 (2005)
주거주택	○	○	○	○	○
요양시설	○	○	○		○
재가서비스	○	식사·안전			
기기용구	○	○	○	○	○
금융보험	○	○	○	○	○
여가교육	○	○	○	○	○
정보·한방·교육		Universal Design			○
생활·의료		○			

자료: 박수천(2005). 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 산업의 정책 대안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1차적으로 모태산업으로부터 8대 고령친화산업을 규정하고 19개의 전략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교통,식품, 의류, 장묘, 교육분야를 포함한 14대 고령친화산업으로 확대할 계획(그림5-2, 표5-2)



주: 모태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고령자, 예비고령자 및 주 수발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인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의 수요에 제한이 없는 근간이 되는 산업

자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그림5-2> 모태 및 고령친화산업 범주 설정

<표5-2>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 19개 전략 품목

부문	19개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 지원 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향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제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자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 모태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기준 2010년 5.87%, 2020년 5.23% 성장 전망
- 우리나라 14대 고령친화산업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는 2002년 12.8조원(모태산업의 2.2%), 2010년 43.9조원(모태산업의 4.7%), 2020년 148.6조원(모태산업의 10.0%)로 추정(표5-3)
- 2002년 기준 고령친화산업의 성장률은 2010년 16.64%, 2020년 14.58%가 될 것으로 예상

<표5-3>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정(모태산업대비)

(단위: 억원, %)

부 문	2002년		2010년		2020년	
	매출액	모태산업 대비비중	매출액	모태산업 대비비중	매출액	모태산업 대비비중
요양산업	129	100.0%	49,299	100.0%	93,661	100.0%
기기산업	7,008	33.8%	21,208	36.0%	66,544	39.8%
정보산업	2,446	0.1%	42,375	1.3%	396,732	7.5%
여가산업	24,387	5.4%	73,370	8.5%	263,941	15.5%
금융산업	10,408	1.5%	55,240	2.9%	185,241	5.8%
주택산업	5,871	1.0%	26,778	2.8%	75,045	4.9%
한방산업	10,188	28.3%	21,153	30.7%	46,738	31.2%

농업	3,383	1.0%	15,986	5.0%	29,564	10.0%
소계	63,820	1.6%	305,409	4.5%	1,157,466	10.3%
교통산업	8,761 ¹⁾	0.9%	33,637	2.9%	94,841	7.3%
식품산업	8,664	2.5%	17,416	3.3%	41,687	4.5%
의약품산업	27,741 ²⁾	34.1%	48,017	43.8%	113,436	66.7%
장묘산업	13,115	75.0%	20,127	81.8%	34,552	90.5%
의류산업	5,298	4.8%	11,412	6.7%	33,030	11.2%
교육산업	935 ¹⁾	0.2%	3,594	0.6%	10,957	1.3%
소계	64,514	3.4%	134,203	5.2%	328,503	9.1%
총계	128,334	2.2%	439,612	4.7%	1,485,969	10.0%

주: 1) 2001년도 기준임. 2) 2003년도 기준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6) 국내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미,일과의 비교

나. 고령관광레저분야 핵심사업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소비욕구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5대 성장산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령관광레저산업은 건강, 시간, 커뮤니티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산업이라 정리할 수 있음(표5-4)
- 고령층의 장기 숙박여행증가, 실버타운입주 선호도 증가, 노인가구 증가, 여가활동의 증가,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활동 욕구의 증대를 고려할 때, 고령관광레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업은 ‘커뮤니티형 실버타운’ 조성으로 볼 수 있음

〈표5-4〉 고령화 사회 5대 성장 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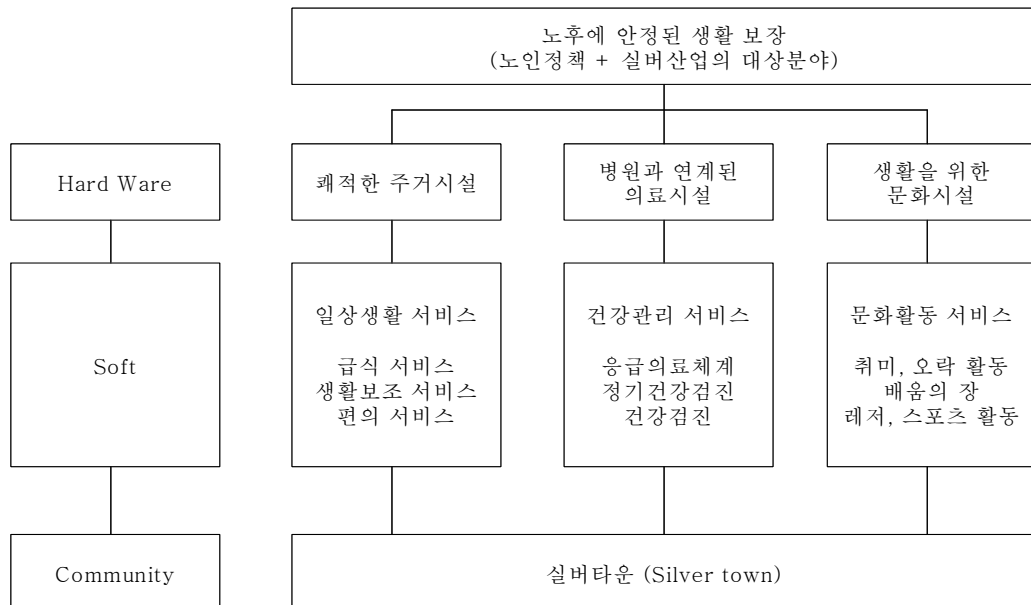
소비욕구		소비형태	유망업종
고령 관광 레저 산업	건강	건강유지, 노화방지 등	재가요양, 원격진료, 노인전문헬스케어, IT융합의료기기, 바이오테크를 활용한 항노화 화장품 및 식품 등
	시간	여행, 레저, 공연, 쇼핑	휴양여행, 엔터테인먼트+쇼핑+레저복합물, 노인대상 디지털콘텐츠, 요트 유람선 등 고급선박 제조 등
	커뮤니티	사회활동, 친교	커뮤니티형 실버타운, 재혼전문 상담, 로봇팻 제조, 레크레이션 이벤트 서비스 등
자산		자산관리, 유산 상속	종합개인 자산관리(PB), 개인연금보험, 분양식 실버타운, 상속 관련 수탁(custody) 및 세무 서비스 등
사후준비		장례준비	생전기록(영상 및 음성)서비스, 밝은 분위기의

1-2. 실버타운사업

가. 개념 및 유형

□ 실버타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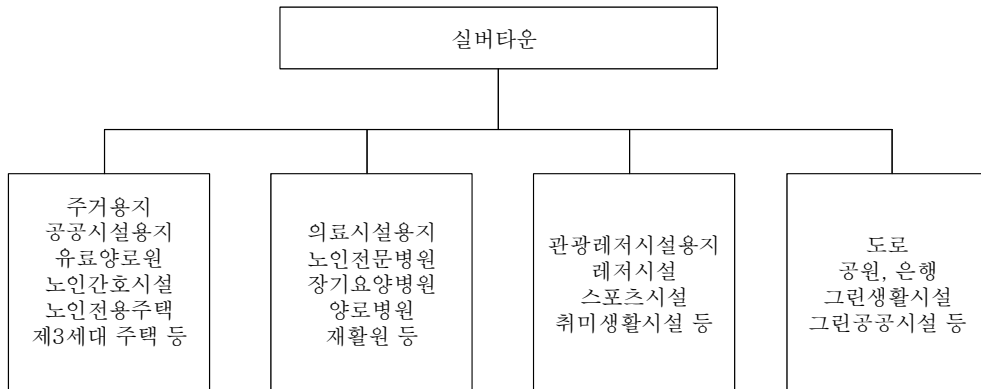
- 실버타운(silver town)은 1960년대 미국 남부지역에 노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한데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노인촌 또는 노인주거단지라고도 하는데,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시설단지(정철모·박영춘, 2004)
- 즉 그림과 같이 실버타운은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및 각종 레저·스포츠 등 휴양시설, 노인병원, 노인 커뮤니티 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각종 서비스를 전문 운영요원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고급형 노인전용 주거단지



자료: 한국토지개발공사, 실버타운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1995. p.63

<그림5-3> 실버타운의 개념

- 한국토지개발공사(1995)의 연구에 따르면 실버타운을 주거, 의료, 관광레저, 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발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그림), 최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고령노동인력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인구를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로 인식하는 새로운 실버타운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 한국토지개발공사,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1995. p.35

<그림5-4> 실버타운의 개발모형구성요소

□ 실버타운의 분류

- 학자들의 분류를 보면(표), 실버타운은 도시형과 휴양지형으로 대별되며, 도시형은 도심형과 도시근교형, 휴양지형은 관광지형과 전원형으로 세분화됨
- 관광레저도시의 입장에서 분류하자면, 도시형의 성격보다는 휴양지의 성격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장에서는 종래의 휴양지형을 관광의 성격을 반영한 '관광지형'과 휴양의 성격을 강조한 '휴양지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표5-5> 유형별 실버타운 분류

구 분	도시형		휴양지형		기 타
	도심형	도시근교형	관광지형	휴양지형	
조추용(2005)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단지형	전원형	-
홍형욱·지은영 (2002)	가족/친구와 30분 이내	도심근처	관광지 근처	한적한 교외	종합복지관 근처
손재원의(2001)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지형		-

□ 실버타운의 유형별 특성

- 입지별 특성으로 실버타운을 구분하면 도심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심형은 노인중심주거단지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상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도시근교형은 도심형과 휴양지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편의시설과 가족과의 만남에 어려움이 없어 일상생활은 전원에서 하다가 필요시 도시를 찾는 생활패턴을 가능하게 함
- 휴양지형은 휴양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매력물이 있어 관광객이 자주 찾는 노인 주거복합단지를 말하는데, 관광레저도시 내 실버타운은 일반적으로 휴양지형 실버타운이 도시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갖춘 휴양지형 복합실버타운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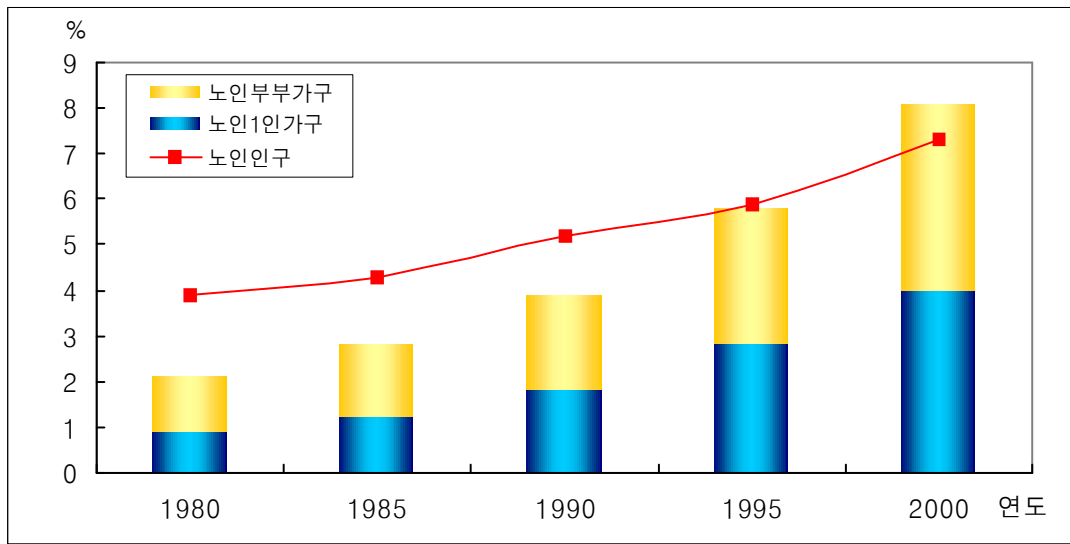
〈표5-6〉 입지별 실버타운의 특성

구분	도심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지형
입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를 고려 • 대도시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 기존 공공, 상업, 의료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종래 생활권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교류 - 생활편의시설의 활용 - 도시기능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과 일조 확보 • 도시형과 휴양지형 중간지형 • 도시와 교통이 정비되어 통근가능,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양호 • 토지가격 비교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면적의 확보가 가능 - 건축계획의 폭 넓음 - 양호한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과 일조 • 자연환경과 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 • 휴양과 농원, 화단가꾸기 등 건강을 위한 지역으로 중소도시와 연계가 좋은 곳 • 문화관광적 요소를 갖춘 곳에 입지/SECOND HOUSE 역할 • 종합적 노인커뮤니티
시설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집중형 - 가족동거의 3세대 주택 - 공동숙사 집단지구 - 노인분리세대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층 집단화 - 노인촌 - 단독, 연립저층 주거시설 - 레저와 건강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층분산형 - 노인타운 - 휴양과 전원주거시설 - 각종 편의시설/문화시설
규모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시설의 활용을 고려한 중소규모 - 아파트 등 단층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여건상 중규모단지 - 노인주거단지 - 단독, 연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화시설 이용집중을 고려한 대규모 - 휴양과 전원시설 - 단독, 주거시설
교통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내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서 1시간-1시간 30분 이내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도시와의 인접 • 기존 국도 및 지방도 연계

	접근용이 •지하철과의 연계	•고속도로, 국도 접속, 전철 연계	
선호특징	•여성선호도가 높은 반면, 고령자일수록 선호도 감소	•전체적으로 고르게 선호하는 반면 고령자의 선호도는 감소	•고령자일수록 선호
단점	•고지가로 신규부지의 확보 곤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사업비용 상승 •자연환경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량	•건축제한이 많음 •도시기능 확산으로 지가가 높음	•도시기능 접근성 어려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음 •토지가격은 낮지만 개발비용 높음 (생활필수시설 단지 내 설치) •운영상 부담이 높음

자료: 손재원 외(2001) 실버타운 입지유형에 따른 공간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연구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에 의하면 노인 인구 증가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타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주생활이 가능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그림5-5)



<그림5-5>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의 비중

- 향후 노인주거산업의 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주택개조 60억 원, 신규주택 2,270억 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모태산업의 0.5% 비중이나 2010년에는 2.8%, 2020년에는 4.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 한편 노인들의 요양시설과 양로시설 이용희망률은 29.7%, 노인전문병원 이용희망률은 38.8%로 나타나 앞으로도 시설 · 병원 수요는 증가할 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4. 해외 실버타운 사례

□ 선진국의 실버타운 동향(표5-7)

- 선진 각국의 실버타운조성에 관한 정책을 보면 미국은 민간주도의 Nursing Home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특히, 사회복지국가)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경향이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공적 노인홈이 부족하여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고령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실버하우징 프로젝트와 실버피아 사업을 통하여 고령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있음

<표5-7>외국의 실버타운 동향

구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사회 접근에 따른 노인친국이다. ◦사회보장제도라 불리우는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이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Nursing home의 경향이다. ◦노인주택의 유형을 4개로 분류하는데 이 중에서도 노인촌락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독립주거시설 중 1/3가량이 대도시에서 인접하고 있다.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보험에 의한 재가보호 공급체계가 신설 강화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수용시설이 다양하다. 특히 고소득층에 치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적인 노인홈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정책은 자신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독립하고 있다. ◦독립 아파트식 단지개념으로 유도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달리 모든 것을 공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체제구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버타운도 대부분 공적으로 운영되며 고령자를 위한 공적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담당하고 있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급격하게 고령화사회 진입국가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생성 중심의 '노인보건시설'의 역할이 강구되고 있다. ◦급증하는 노후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고령자 주택건설 필요로 실버하우징 프로젝트와 실버피아 사업이 보편화되고 있다.
--	--

자료: 원윙희(2002)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 p36

□ 일본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경험한 국가이며, 미국은 1945년에 전체인구의 7%로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전국에 2만 5천여개소의 실버시설이 들어선 노인주거촌이 형성된 노인천국으로서 미래 우리나라의 실버타운건설에 참고가 되는 대표적인 선진국가들임 (원윙희, 2002)
- 일본의 경우, 고령자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고 있음 주거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유형의 주거관련사업이 추진되고있음
- 일본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형태로 유료노인홈, 고령자 전용주택, 3세대주택, 보호장치부착 집합주택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노인주거시설의 설립주체로는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개인 등이 있음
- 일본의 경우 도심부에 고층맨션 개념의 고층 실버타운이 난립하여 마을 고유의 형태를 훼손하고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 매사추세츠의 도심에 건설된 비콘힐 빌리지(Beacon Hill Village)는 하나의 고령 커뮤니티로서 다양한 연령층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된 성공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미국

- 미국과 일본의 사회현상을 조사해보면, 손자들의 육아를 도와주기는 싫으나 시설에 사는 것도 원치 않는 고령자들을 위한 고급 유료노인주택(실버타운)의 건설이 활발하고 건설 이전부터 입주신청이 폭주하고 있음(무라타, 2004)
- 미국은 서유럽과 달리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 보다 민간이 상당 부분의 서비스를 담당하여 실버산업이 가장 발달했으며, 요양분야의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중이며 유료노인주택 관련 분야도 큰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일반적으로 노인전용 공동주택은 100-500세대의 규모이며, 중고층 건물로 도심이나, 대중교통, 쇼핑, 의료서비스 접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함
- 미국의 고령자 전용 서비스 주택은 일상생활보호주택과 평생보호노인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가 대표적임

□ 고령 커뮤니티개념의 실버타운(무라타, 2004)

- 비콘힐 빌리지는 오래전부터 고급주택가로 알려져 있으며 9천명 거주민 중 14%인 1천4백명 정도가 60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실버타운으로 일본의 중장년층 관광객의 코스로도 유명
- 이곳은 나이가 들어도 온퇴자 커뮤니티(CCRC, Continued Care Retirement Community) 등의 요양시설로 가기를 원치 않는 고령자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인해 더 젊은 층의 거주지로서도 인기가 높음
- 비콘힐 빌리지는 입주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같은 단지내 세가지 형태의 주택을 제공하고, 전체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인 개념과 사회복지적인 개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실버타운으로 평가됨

〈표5-8〉 미국 실버타운 ‘비콘힐 빌리지’의 성공요소

다양한 입주형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자립적 생활이 가능자를 위한 '인디펜던트 리빙(independent living)'	장보기 대행, 교통수단제공, 핸디맨 서비스, 처방약 구매, 애완동물시중 등을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는 '빌리지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주1회의 워킹 피트니스교실, 정기적인 콘서트와 보트 위에서의 만찬 등 지역주민과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이벤트 등이 마을 전체에서 실시되는 커뮤니티 서비스의 확충
일상적 보조가 제공되는 '어시스턴트 리빙(assistant living)'	연회비 500달러를 지불하면 커뮤니티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에 대해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혼자라면 부담이 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받을 수 있음

자료: 무라타(2005) 시니어 비즈니스 참조

2. 관광레저도시의 고령정주수요

2-1. 기본전제

□ 고령층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주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정주수요의 연령대는 65세이상인구를 대상으로 설정

○ 실버관광수요를 추정하는데 있어 대상 연령층을 50대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정주수요의 대상은 경제·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한 일상적 생활권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거소변경이 가능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삼음

□ 정주수요를 전망함에 있어 현재 3곳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선호에 대한 선행연구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행태별·선호별 수요전망이 불가능하여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한 하향식 방식을 적용

○ 하향식방식은 노령인구를 기본자료로하여 구매의향, 선호도, 목적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총량단위에서 출발하는 방식을 적용

○ 고령주택선호 및 입주의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전망을 실시

□ 정주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3개 지역에 도입될 실버타운의 성격을 무료노인 시설이 아닌 유료시설로 가정하여 정주수요를 추정

○ 유료/무료 시설의 구분에 따라 사회경제적 계층을 고려한 수요 추정시 저층수요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포함됨. 본 연구에서는 유료시설로 가정하고 저층의 수요는 실제 전망수요에 반영하지 않음

□ 입주희망의사, 선호유형, 대상지 선호도 등과 관련된 자료는 관련 선행연구 등에서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에 따라 상이한 값을 보임에 따라 최근 실시한 연구자료를 활용토록 함.

○ 이러한 비율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수치를 예측기간 전반에 반영키로함

2-2. 고령계층의 정주형 주택수요 전망

- 통계청 추계인구에 기초하여 65세대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2005년 약 2007년 558만명에서 2015년 773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를 중심으로 고령인구의 경제적 계층을 상층 10%, 중층 60%, 저층 30%로 삼아 구분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5-9> 계층별 고령인구전망

(단위: 명)

구 분	상층	중층	저층	계
2005	504,287	3,025,720	1,512,860	5,042,866
2006	530,786	3,184,718	1,592,359	5,307,863
2007	558,244	3,349,465	1,674,732	5,582,441
2008	584,292	3,505,754	1,752,877	5,842,923
2009	607,991	3,647,944	1,823,972	6,079,907
2010	630,853	3,785,119	1,892,559	6,308,531
2011	656,047	3,936,280	1,968,140	6,560,466
2012	684,162	4,104,971	2,052,485	6,841,618
2013	714,225	4,285,348	2,142,674	7,142,246
2014	744,137	4,464,823	2,232,411	7,441,371
2015	773,074	4,638,441	2,319,221	7,730,735

자료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 최근 실시된 고령층의 공동주택**관련 연구***에서의 결과를 보면 경제사회

* 홍형욱·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 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표본의 계층구분결과 상층5.4%, 중층 67.3%, 저층 27.3%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추정에서는 이를 일부 조정하여 상층 10%, 중층 60%, 저층 30%로 조정하여 적용하였음. 일반적으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 20%와 하위 40%를 제외한 계층을 중산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인공동생활주택이란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양로원 등에 갈 필요가 없는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유형의 하나로 공유공간과 관리인이 있어 거주자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이나 사교·여가프로그램 제공, 생활지원 및 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함(홍형욱·유병선, 2003)

*** 홍형욱·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 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홍형욱·유병선(2003), “노후의 일·여가 태도에 따른 노인 공동생활주택 선호 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홍형욱·지은영(2004),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의 지역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등의 내용을 참고.

적 계층을 기준으로 입주의사에 있어 상층은 70%, 중층 56%, 하층 66%로 조사된바 있음.* 이러한 의사를 상기의 <표 4-1>에 적용할 경우 아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분석결과 2015년 고령계층의 노인공동주택 수요는 총 467만명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상층 54만명, 중층 260만명, 저층 153만명으로 전망됨

<표 5-10> 계층별 고령인구의 노인공동주택 입주의도에 따른 수요 전망

(단위: 명)

구분	상층	중층	저층	계
2005	353,001	1,694,403	998,487	3,045,891
2006	371,550	1,783,442	1,050,957	3,205,949
2007	390,771	1,875,700	1,105,323	3,371,794
2008	409,005	1,963,222	1,156,899	3,529,125
2009	425,593	2,042,849	1,203,822	3,672,264
2010	441,597	2,119,666	1,249,089	3,810,353
2011	459,233	2,204,317	1,298,972	3,962,521
2012	478,913	2,298,784	1,354,640	4,132,337
2013	499,957	2,399,795	1,414,165	4,313,917
2014	520,896	2,500,301	1,473,391	4,494,588
2015	541,151	2,597,527	1,530,686	4,669,364

2-3. 고령계층의 유형별 공동생활주택 수요 전망

□ 앞부분에서 전망된 고령계층의 공동생활주택 수요에 기초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위치할 실버타운의 수요전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형별 선호도를 분석하였음

- 계층별 노인공동주택 입지선호도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며,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5-11>과 같음

* 최근 연구결과(김경애, 2004; 신현경, 2005)의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80%가 실버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64.2%가 입주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버타운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7%, 이중 56.8%가 입주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하춘광, 2006의 내용을 재정리)

<표 5-11> 입지별 노인공동주택 선호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도시형	도심근처	36.4	34.8	25.9
	가족,친구와 30분 이내	13.6	15.9	23.2
휴양지형	한적한 교외	45.5	40.9	30.4
	관광지 근처	4.5	4.0	9.8
기타	종합복지관 근처	0	4.3	10.7

자료: 홍형욱·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 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의 자료를 도시형, 휴양지형, 기타로 재구분

- 분석결과 고령계층의 공동생활주택수요에 있어 상층계층은 2015년 도시형 27만명, 휴양지형 27만명, 중층은 도시형 132만명, 휴양지형 117만명. 저층계층은 도시형 75만명, 휴양지형 28만명으로 추정되었음

<표 5-12> 계층별 입지유형별 공동생활주택 수요

(단위: 명)

구분	상층		중층		저층		기타	계
	도시형	휴양지형	도시형	휴양지형	도시형	휴양지형		
2005	176,500	176,500	859,062	760,787	490,257	401,392	181,392	3,045,891
2006	185,775	185,775	904,205	800,765	516,020	422,485	190,924	3,205,949
2007	195,385	195,385	950,980	842,189	542,714	444,340	200,800	3,371,794
2008	204,502	204,502	995,354	881,487	568,037	465,073	210,170	3,529,125
2009	212,797	212,797	1,035,724	917,239	591,076	483,936	218,694	3,672,264
2010	220,799	220,799	1,074,671	951,730	613,303	502,134	226,918	3,810,353
2011	229,616	229,616	1,117,589	989,738	637,795	522,187	235,980	3,962,521
2012	239,457	239,457	1,165,483	1,032,154	665,128	544,565	246,093	4,132,337
2013	249,979	249,979	1,216,696	1,077,508	694,355	568,494	256,907	4,313,917
2014	260,448	260,448	1,267,652	1,122,635	723,435	592,303	267,666	4,494,588
2015	270,576	270,576	1,316,946	1,166,290	751,567	615,336	278,075	4,669,364

- 휴양지형 공동생활주택의 유형을 한적한 교외와 관광지로 세분하여 전망하면 상층 노령계층의 경우 2015년 한적한 교외의 공동주택수요가 25만명, 관광지 근처 2.4만명으로 전망되며, 중층 노령계층의 경우 각각 106만명, 10.3만명 규모로 전망됨.

- 세분된 분석결과에 기초할 경우 노인공동생활주택 입주수요중 휴양지형 수요에 있어 관광지형보다는 한적한 교외에 입지한 곳을 선호하는 수요가 상·중층 노령계층에 있어 관광지형의 10배 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고령계층을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교외형의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임

<표 5-13> 세분화된 휴양지형 노인주택 수요

(단위: 가구)

구분	상층		중층		저층		계	
	한적한 교외	관광지 근처	한적한 교외	관광지 근처	한적한 교외	관광지 근처	한적한 교외	관광지 근처
2005	160,615	15,885	693,011	67,776	303,540	97,852	1,157,166	181,513
2006	169,055	16,720	729,428	71,338	319,491	102,994	1,217,974	191,051
2007	177,801	17,585	767,161	75,028	336,018	108,322	1,280,980	200,934
2008	186,097	18,405	802,958	78,529	351,697	113,376	1,340,752	210,310
2009	193,645	19,152	835,525	81,714	365,962	117,975	1,395,132	218,840
2010	200,927	19,872	866,944	84,787	379,723	122,411	1,447,593	227,069
2011	208,951	20,665	901,565	88,173	394,888	127,299	1,505,404	236,137
2012	217,906	21,551	940,203	91,951	411,811	132,755	1,569,919	246,257
2013	227,481	22,498	981,516	95,992	429,906	138,588	1,638,903	257,078
2014	237,008	23,440	1,022,623	100,012	447,911	144,392	1,707,542	267,845
2015	246,224	24,352	1,062,389	103,901	465,328	150,007	1,773,941	278,260

- 추정된 공동주택의 입지유형별 수요를 실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입주가 능한 가능한 계층의 수요로 조정할 경우 2015년 총 9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 “2006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 혼인상태에 있어 배우자 있는 경우 55.4%로 나타나며 이외의 비율은 사별, 이혼, 미혼의 상태로 나타남에 따라 가구수요 전망에 있어 가구당인원수는 1.5인으로 가정함

<표 5-14> 6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천명, %)

연령	2000					2005				
	전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전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65세이상	3,372	0.3	52.0	47.0	0.7	4,365	0.5	55.4	42.9	1.1
65 ~ 69세	1,376	0.4	67.0	31.6	1.0	1,680	0.6	70.9	26.9	1.7
70 ~ 79세	1,519	0.3	47.2	51.8	0.6	2,020	0.4	52.4	46.3	0.9
80세이상	477	0.2	23.6	75.8	0.3	666	0.5	25.6	73.4	0.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입주가능 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상층은 100%가 가능수요로 중층은 50%가 입주가능 범위에 달할 것으로 전제함. 단, 저층의 경우 고려하지 않음

<표 5-1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수준 공동생활주택 정주가능 고령가구수요 전망

(단위: 가구)

년도	상층	중층	저층	계	입주가능수요
2005	117,667	507,191	267,595	892,453	371,263
2006	123,850	533,844	281,656	939,350	390,772
2007	130,257	561,460	296,227	987,943	410,987
2008	136,335	587,658	310,049	1,034,042	430,164
2009	141,864	611,493	322,624	1,075,981	447,611
2010	147,199	634,487	334,756	1,116,442	464,442
2011	153,078	659,825	348,125	1,161,028	482,990
2012	159,638	688,103	363,044	1,210,784	503,689
2013	166,652	718,339	378,996	1,263,987	525,822
2014	173,632	748,423	394,869	1,316,924	547,844
2015	180,384	777,526	410,224	1,368,134	569,147

주: 입주가능수요={상층+(중층×0.5)}/1.5(세대당 인구)로 산정함

2-4. 관광레저도시 지역별 고령층 정주수요

□ 기업도시 입주가능수요를 기초로 현재 지정된 3곳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입주가능 수요전망을 실시한 결과 2015년 최대 총 18,152가구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지형수요를 최소수요로 할 경우 2,727가구의 수요가 추정됨

- 영암·해남지역의 경우 전국관광총량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율(9.07%)에 전남지역에서 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율(11.8%)를 적용하였음
- 태안지역의 경우 전국관광총량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8.01%)에 태안지역이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율(20.7%)를 적용하였음
- 무주지역의 경우 전국관광총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4.51%)에 전북에서 무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율(10.2%)를 적용하였음

□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수요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노령층(65세 이상) 정주수요로 전제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5-16>과 같음. 단, 추정된 수요에 있어 휴양지형 수요는 잠재정수요의 최대값 즉, 최대 잠재수요로 설정할 수 있으며 관광지형 수요는 최소잠재수요로 설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영암·해남지역의 경우 최소 915가구에서 최대 6,091가구의 범위내에서 노령층 정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태안지역은 최소 1,418가구에서 최대 9,440가구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무주지역은 최소 394가구 최대 2,620가구로 전망됨

□ 이러한 정주수요전망을 기초로 할때 향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잠재정주수요를 현실화 하는 노력이 사업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향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고령층 주거시설은 고령층의 선호에 부합하는 건강지원기능, 관광·레저기능, 가사지원 기능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표 5-16> 관광레저도시 지역별 고령층 정주수요 전망 결과

(단위: 가구)

구분	영암/해남		태안		무주		계	
	관광지형	휴양지형	관광지형	휴양지형	관광지형	휴양지형	관광지형	휴양지형
2005	597	3,973	925	6,158	257	1,709	1,779	11,841
2006	628	4,182	974	6,482	270	1,799	1,872	12,463
2007	661	4,399	1,024	6,817	284	1,892	1,969	13,108
2008	692	4,604	1,072	7,135	298	1,981	2,061	13,719
2009	720	4,791	1,115	7,424	310	2,061	2,145	14,276
2010	747	4,971	1,157	7,704	321	2,138	2,225	14,813
2011	777	5,169	1,204	8,011	334	2,224	2,314	15,404
2012	810	5,391	1,255	8,354	348	2,319	2,413	16,064
2013	845	5,628	1,310	8,722	364	2,421	2,519	16,770
2014	881	5,863	1,365	9,087	379	2,522	2,625	17,473
2015	915	6,091	1,418	9,440	394	2,620	2,727	18,152

3. 관광레저도시형 실버타운 모형

3-1. 배경

□ 의의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경제부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일부 지방도시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고령화시대 지방도시의 실버타운 조성은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지닌 노인들의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노인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지구/단지를 만들어가는 21세기 신정주기반을 조성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임(정철모·박영춘, 2004)

□ 개발방향

- 고령자들은 젊은 사람들과 별개의 취급을 받기를 원치 않으며 생각보다 훨씬 젊은 취향의 개성적인 소비특성을 가지고 있어(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다른 커뮤니티들과 공존하는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을 선호함
- 관광레저도시형 고급휴양도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고급형 실버타운 선호자와 도심형 및 휴양지형 실버수요자를 모두 끌어들이 수 있는 실버타운 조성조건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관광레저도시형 실버타운은 전국적으로는 휴양지형 선호자들을 목표시장(target market)으로 하지만 도심의 고급주택단지 내에 조성된 ‘고급형·커뮤니티형 실버타운’ 형태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3-2. 실버타운 입지 및 주거형태

□ 입지

- 관광레저도시의 실버타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상급 수준의 노인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성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의 선호도 조사(표)에 따르면 관광레저도시의 실제 이용자로 볼 수 있는 상층과 중층 모두 높은 비율로 한적한 교외(각각 45.5%, 40.9%)를 1순위, 도심근처(각각 36.4%, 34.8%)를 2순위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관광레저도시는 휴양지 성격의 편안함과 도시의 편의시설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 계층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레저도시의 도심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됨
- 노년층은 고립된 커뮤니티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취업과 문화활동,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심 또는 도시근교에 살기를 원하지만(진영호, 1997), 대도시는 높은 지가 및 비즈니스형 사회환경으로 인하여 실버타운형성이 어려운 형편임
- 관광레저도시의 실버타운이 조성될 경우, 정주수요예측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양지 선호형 수요자(2015년 기준 18,152가구전망)가 목표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지형 실버주택을 원하는 수요(2005년기준 2727가구전망)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표5-17> 사회계층에 따른 주택위치 선호도

(단위: 명,%)

주택위치	사회계층			전체
	상층	중층	하층	
한적한 교외	10(45.5)	113(40.9)	34(30.4)	157(38.3)
도심근처	8(36.4)	96(34.8)	29(25.9)	113(32.4)
자녀/친구와 30분 이내	3(13.6)	44(15.9)	26(23.2)	73(17.8)
산천이 수려한 관광지 근처	1(4.5)	11(4.0)	11(9.8)	23(5.6)
노인종합복합관 근처	0(0.0)	12(4.3)	12(10.7)	24(5.9)
계	22(100)	276(100)	112(100)	410(100)

자료: 홍형옥/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p91

□ 주거형태

- 노인주거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조사를 계층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이사할 용의가 많으며(상층 47.6%, 중층 34.9%) 가능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한 집에서 오래살기를 원함(상층 28.6%, 중층 43.8%)(표5-18)
- 상층은 관리인이 있는 노인생활지원주택에 거주하거나(31.8%) 자기집에서 단독(22.7%) 또는 가족과 함께(22.7%) 살기를 원하는 반면, 중층은 자기집에서 단독(31.3%)으로 사는 것을 가족과 함께(24.0%) 사는 것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5-18> 사회계층에 따른 주택위치 선호도

(단위: 명,%)

구 분		사회계층			전체
		상층	중층	하층	
주택에 대한 생각	투자가치	2(9.5)	11(4.0)	4(3.6)	17(4.2)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살기 좋게 고쳐 한집에서 산다	6(28.6)	119(43.8)	44(39.6)	169(41.8)
	필요에 맞게 이사한다	10(47.6)	95(34.9)	35(31.5)	140(34.7)
	그때 그때 고치며 한 곳에 산다	3(14.3)	47(17.3)	28(25.2)	78(19.3)
계		21(100)	272(100)	111(100)	404(100)
바람직 한 거 주방식	가족과 함께 자기 집에서 그대로 거주	5(22.7)	66(24.0)	20(18.3)	91(22.9)
	자기 집을 개조하여 혼자 혹은 부부만 거주	5(22.7)	81(31.3)	41(37.6)	132(32.5)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장애물 없이 살 수 있도록 디자인된 집에서 독립적으로 거주	2(9.1)	49(17.8)	14(12.8)	65(16.0)
	좀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	0(0.0)	22(8.0)	11(10.1)	33(8.1)
	관리인이 있고 노인들이 소규모로 모여 사는 노인 생활지원주택에 거주	7(31.8)	31(11.3)	18(16.5)	56(13.3)
	대규모의 저립형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거주	0(0.0)	4(1.5)	1(0.0)	5(1.2)
	대규모의 고급형 은퇴노인촌에 거주	3(13.6)	17(6.2)	4(0.0)	24(5.9)
	계	22(100)	275(100)	109(100)	406(100)

자료: 홍형욱/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p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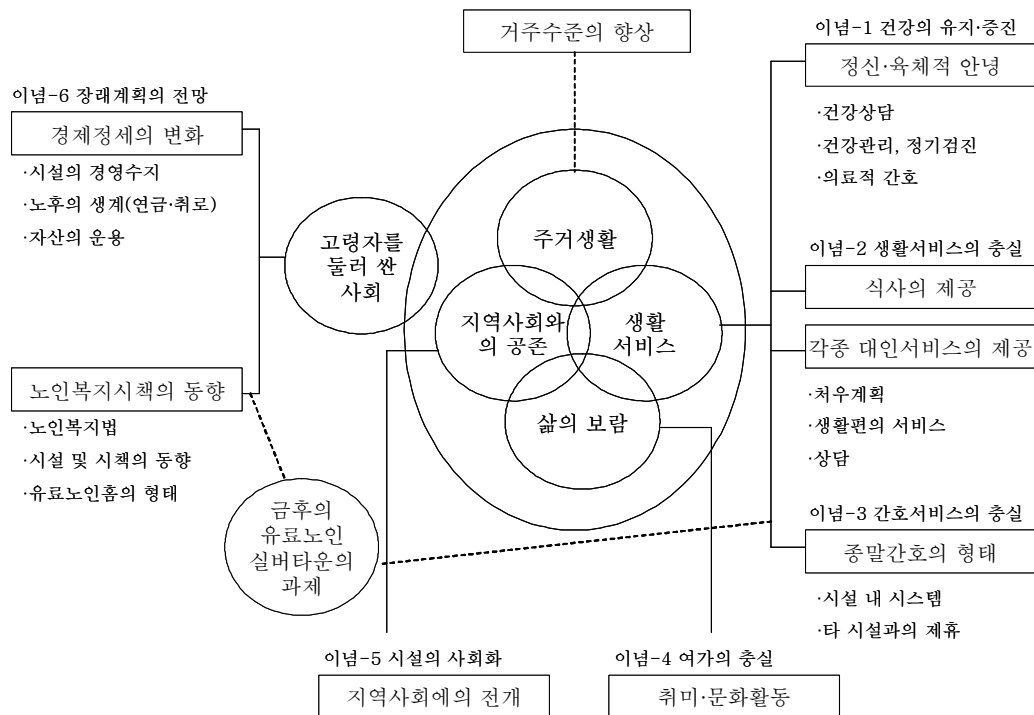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버타운조성에 대한 입지 및 주거형태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외에 위치한 도심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며, 상층과 중층 모두 자기 집처럼 오래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곳을 원하며, 특히 상층은 고급형 실버타운의 거주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원도시형 성격을 지닌 관광레저도시로의 고령층 잠재 이주자는 충분하다고 여겨짐
- 일본의 경우처럼 대도시 실버빌딩 내 고령 거주자들이 주변 거주민과 겪는 갈등을 피하고, 미국의 ‘비콘힐 빌리지’처럼 다양한 연령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 수 있

는 고급형 실버타운을 조성하되, 고령단독주거형태와 2, 3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형태가 같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3-3. 관광레저도시형 실버타운모형

□ 실버타운 모형의 기초(원용희, 2002)

- 실버타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주거문제와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휴식 및 여가를 즐기는 공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계획단계에서 계획이념도(그림5-6)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영위되도록 주거시설, 일상생활 지원시설 및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실버타운 조성은 첫째, 고령자들의 정신·육체적 안녕을 근본취지로 가져가야하며(이념1), 둘째, 사회적 환경(이념6)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지조건, 시설유형 및 규모를 계획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내부시설 및 서비스, 교양, 오락, 문화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이념2, 이념3, 이념4)
- 그러나 시설의 사회화(이념5)는 공공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고급형 실버타운 계획 시에는 유효한 이념이 아닐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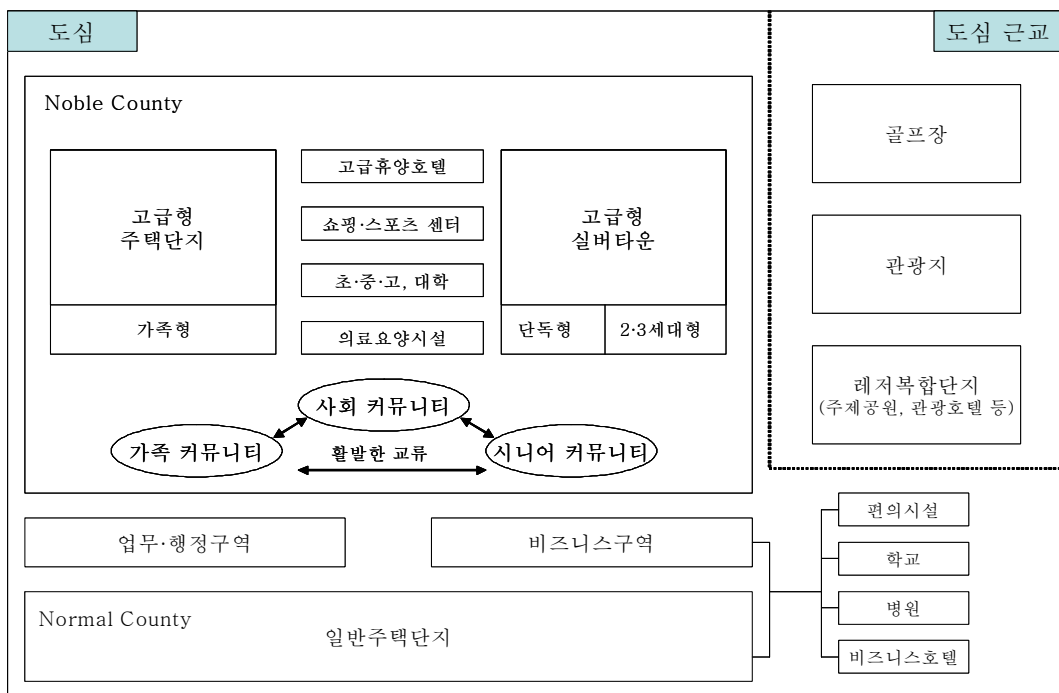
자료: 원용희(2002)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개발방향에 대한연구

<그림5-6> 실버타운계획의 이념도

□ 관광레저도시의 실버타운 모형

- 관광레저도시는 주거와 산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거도시와 산업도시와는 달리 부유한 휴양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앞에서 계층별 입지선호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적한 교외(상층 45.5%, 중층 40.9%), 도심근처(상층36.4%, 중층 34.8%)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바, 관광레저도시는 이미 도시자체가 휴양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심에 실버타운이 형성될 때 수요층이 훨씬 두터울 것으로 전망됨
- 주택단지 유형으로는 전원형의 고급주택단지(Noble County) 와 행정과 관광레저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업무형 주택단지(Normal County)로 대별(2N 시스템) 될 수 있음(그림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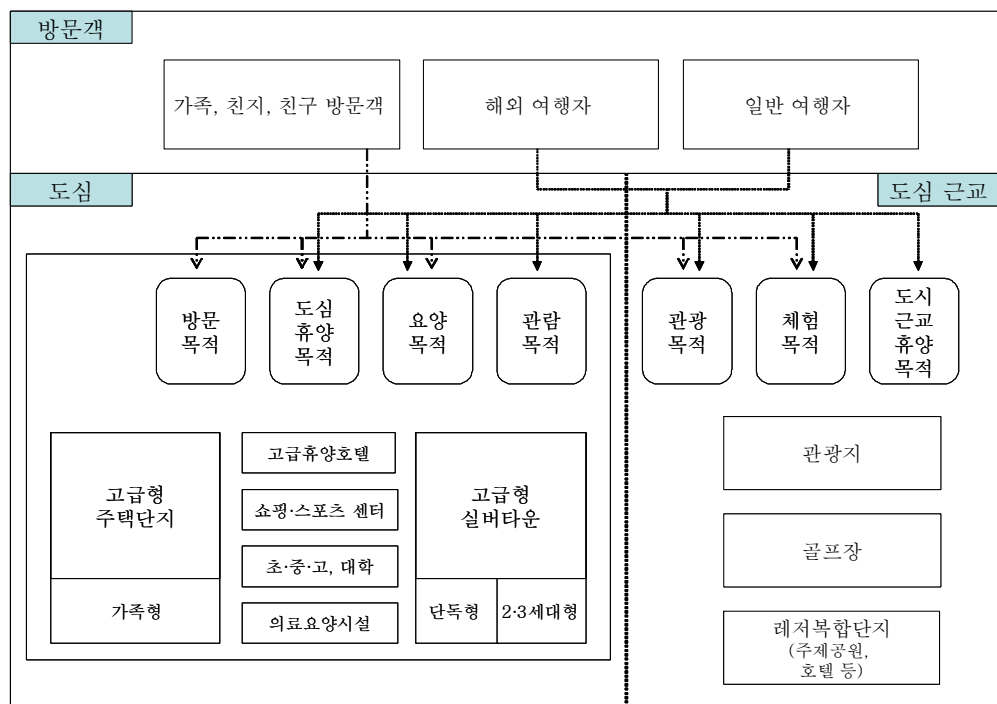
- 고급형 주택단지는 잘 발달된 사회시설을 선호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형 주택단지와 노인단독 또는 2,3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실버타운이 하나의 마을형태로 조성될 수 있음
- 각 유형의 주거단지에는 학교, 병원, 호텔 및 모든 생활편의시설이 별도로 들어설 수 있으며, Noble County의 이러한 시설들은 노약자를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개념을 도입하게 될 것임
- Noble County에는 고령층의 ‘시니어 커뮤니티’, 다양한 사회단체가 구성하는 ‘사회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족 커뮤니티’의 3가지 유형의 커뮤니티가 활발히 교류하는 하나의 온정이 깃든 전형적인 마을을 형성하게 될 것임



〈그림 5-7〉 관광레저도시 실버타운 모형

□ 관광레저도시의 방문객 유형별/목적별 분류

- 관광레저도시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목적지는 도심과 도심근교로 나눌 수 있으며, 도시를 방문하는 목적으로는 방문, 휴양, 요양, 관광이 있으며, 도심근교의 방문목적은 관광, 체험, 휴양으로 나눌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2004,2005)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 방문지 활동 유형으로 가족, 친지방문이 44%대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방문객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가족, 친지, 친구를 방문하는 동안 이들은 또한 휴양, 요양, 관광,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음
- 해외여행자와 국내일반여행자는 휴양, 요양, 관광, 체험 목적 이외에도 미국의 ‘비콘힐 빌리지’처럼 이 지역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음



<그림5-8> 목적별 관광레저도시 방문형태

3-4. 일본 실버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사례

□ 하쿠바 ‘실버휴양타운’

- 하쿠바는 199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산악형 휴양타운으로서 고령휴양객들을 위한 호텔등 장기 숙박시설의 제공, 분야별로 전문교육요원을 두어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하고 있음
- 운영에 있어서 현지 관광국이 중심이 되어 호텔, 스키리조트, 병원 등 모든 마을 주민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급형 실버 휴양타운으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도쿄 ‘게이오백화점’

- 사업부진으로부터 차별화전략을 모색하던 중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층을 백화점 가운데(4층)에 열어 젊은층과 고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인 백화점으로 발돋움
- 시니어층인 4층은 상품,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모두 고령대상으로 편안하게 준비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노인, 손잡고 걷는 노인부부 등 고령쇼핑센터로서 벤치마킹하기 좋은 백화점임

□ 초등학교 내 ‘우지명성원’ 사회복지시설

- 1995년 일본에서 초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우지시 오구라 초등학교내에 무료로 제공된 공간에 세워진 ‘우지명성원’은 간호사, 개호원(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에 해당), 조리사등 13명의 직원을 두고 인근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중임
- 이러한 유형의 학교내 사회복지시설은 일본 전역에 걸쳐 100여개가 있으며, 초,중,고, 대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시설이 위치한 오구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원하여 돌아가며 매일같이 시설방문 노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어 실버 커뮤니티와 사회커뮤니티간의 교류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참고문헌 >

-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김창수(2005), 노인 사회복지관광정책의 인식 및 요구도 분석, 관광정책학연구, Vol.11, No.3
- 김현(2003), 노인복지관광 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미애(2004), 60세 이상 인구의 명칭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적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세범,김병석(2005), 해외여행상품의 서비스품질과 만족 및 재구매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품질척도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Vol.19, No.2
- 대한상공회의소(2005),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2006), 국내실버산업의 성장성전망 -미·일과의 비교, 대한상공회의소
- 문화관광부(2004),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5),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외(2006),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문화관광부
- 박래정,양희승(2005), 다가올 고령시대 뜨는산업 지는산업, LG주간경제
- 박래정,양희승(2005), 고령시대,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LG경제연구원
- 박수천(2005), 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 산업의 정책 대안 -노인 요양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 모색, 노인복지연구, Vol.28, No.0, 한국노인복지학회
- 박재간,김태현(1986),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6호
- 보건복지부(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6),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정부·민간합동작업단
- 변재관(2004),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산업자원부(2004), 일본의 실버산업, 산자부 내부자료
- 산업자원부(2005), 북미 실버산업 현황 및 진출확대방안,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2006), 고령화시대 5대 성장산업 트렌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 산업자원부(2006),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법률안,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 산업자원부(2006),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법률안(정부안),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 서울신문(2004), (기업도시법안 마련) 기업도시 4가지 유형

- 서울신문(2006), 고령친화산업동향 실버산업 4년 뒤 ‘골드업종’ 된다
- 서천범(1999), 레저산업 21,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손재원외(2001), 실버타운의 입지별 유형에 따른 공간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Vol.7, No.1,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 시니어비즈니스(2005), 무라타 히로유키, 넥서스books
- 엄서호(1998), 레저산업론, 서울, 학현사
- 오석윤,오영찬(2000), 노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관광지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Vol.15, No.2 ,219-239
- 유공순(1998), 독일 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Vol.1, No.2
- 이견직(200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세미나 자료
- 이민표(2000), 21세기 실버산업의 방안과 대책, 노인복지연구,7,7-26
- 이운정,정순희(2003), 노인의 여가시간 소비의 영향요인 분석
- 이제홍(1993),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지평(2005), 저출산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LG경제연구원
- 이희범(1999), 노인들을 위한 바람직한 여가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3(2), 207-222
- 이홍윤(1998), 레저산업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3, 53-71.
- 일본여가개발센터(1992), 레저백서 92
- 원윙희(2002),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 p36
- 정철모, 박영춘(2004), 고령화시대의 지방도시개발과제 - 실버타운 개발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연구, Vol.29, No.1,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 조구현(2004), 노인복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Vol.15, No.0
- 조명환(2005),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Vol.17, No.4,
- 조추용(2005), 유료 노인주거복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노인복지연구, Vol.28, No.0, 한국노인복지학회
- 전만복(2004), 21세기 실버산업의 이슈와 전망
- 정철모,박영춘(2004), 연구논문: 고령화시대의 지방도시 개발과제 -실버타운 개발방안을 중심으로-

- 진영효(1997), 용어해설 : 근린추구 , 전원도시 , 실버타운, 도시문제, Vol.32, No.34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통계청(2006), 고령자통계, 통계청
- 통계청(2006),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2006), 가계조사연보, 통계청
- 통계청(2006), 인구동태건수 동태율추이, 통계청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최장호, 노용구(2003), 실버레저산업의 전망과 발전방안
- 최성재(2002), 고령화사회의 실버산업육성방안, 국토연구원, 254, 40-51
- 최은영(2005), OECD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관광공사(1999-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 UNWTO(2006), World Tourism Highlights 2006, UNWTO
- KOTRA(2004), 캐나다의 실버산업현황 및 진출방안, KOTRA
- 하춘광(2006),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실버타운 선호도가 실버타운 입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Vol.24, No.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한상겸(2004), 실버계층의 여가패턴에 관한연구, 창업정보학회지 7권 4호
- 한국노년학회(1986),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생활에 관한연구
- 한국레저산업연구소(2006), 레저백서2006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2006국민여가조사
- 한국토지개발공사(1995), 실버타운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p63
- 한국토지개발공사(1995),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p35
- 황의록,이은경(1992), 노령화사회와 노인소비자 : 한국 노인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소비자학회 ,92년도 총회 및 학술대회
- 홍형욱,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가정관리학회지, Vol.20, No.2, 한국가정관리학회
- 홍형욱·유병선(2003), 노후의 일·여가 태도에 따른 노인 공동생활주택 선호 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홍형욱·지은영(2004),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의 지역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 OECD HEALTH DATA 2006, <http://www.oecd.org/home>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각년도), 인구통계자료집
- 일본 총무성(2006)통계국, 가계조사
- 양희승(2005), 고령화 시대의 도전, LG주간경제
- LG주간경제(2005), 다가올 고령시대 뜨는산업 지는산업, LG주간경제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 Havighurst(1988), R.j., Social Role, Work, Leisure, and Education, In C.

- Hooyman, N.R., & Kiyak, H., Social Gerontology-A Multi disciplinary Perspective, Allyn and Bacon Inc.
- Kaplan(1960), R.L. The Use of Leisure, In Hanbook of Gerontology, Edited by C. Tibbit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majedier J(1974), Sociology of Leisure, Trans. by Mekenzie. p. 13.
- Parker S(197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p. 23.
- Neulinger J(1976), The Need for the Implications of a Psychological Conception of Leisure. The Ontario Psychologist (8-2) P. 13-20
- Thomas J(1980), Social problems: Divergent Perspectives. Sullivan et al.
- Tokildsen, G(1983),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E & F.N. Spon
- Edginton(1995), C.R., Jordan, D. J. & De Grafe, D. G..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WM. C. Brown Communications, Inc.
- Crossley, J. C., & Jamieson, L. M.(1993), Introduction to Commercial and Entrepreneurial Recreation, Champaign, IL. : Sagamore.

연구진

■ 연구책임

최기탁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 관광전문 컨설턴트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진

박영진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대학원생

이재진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대학원생

송화영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재학생

이미야 리사 일본 불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 연구자문 (가나다순)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세명여자대학교